

[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경제정의연구소<sup>†</sup>**

< 요약 >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그 말이 사실일까? 기획재정부 등 주무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내 고위공직자/기관장들의 프로필을 전수 조사하여 전/현직 고위공직자 출신 회전문/낙하산 인사(소위 “관피아”)을 판별하고, 연공서열별(연령, 계급, 기수)·분야별·기관별 분포도를 교차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피아의 세력도(직위 점유율, 예산규모, 보수), 이합집산도, 균형위험도를 제시하고, 다중응답, 문헌조사, 신경망분석 등을 통해 통계모델에 대한 신뢰도를 사후검증하였다. 분명한 사실은, 관피아 세력간 상명하복관계에 있어서 “모피아”가 상위권력 분포를 대체하고 현재 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관피아, 모피아, 기획재정부, 이합집산도, 균형위험도, 회전문인사, 낙하산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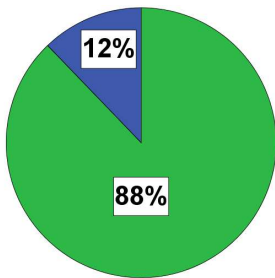
## 윤석열 정부 모피아 권력지도

### ■ (모피아 현황) 윤석열 첫 내각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는 전체의 12% 차지

\*관피아: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재취업 기관의 이익 대변하는 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소위 고위공직 회전문 인사(퇴직후 재취업자)·낙하산 인사(타부처 재취업자)를 말함

<참고1> 모피아 비중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기관장 비율(%)

\*출신: ■ 기재부 / ■ 비기재부



● (명목) 공석을 제외한 총 533개 대비 65개(12%) 직위자들이 기재부 출신자들로 내각 구성 <참고1>

■ (실질) 검직을 제외할 경우 38/504명(7.5%) 전/현직 모피아 인사 내정자들 확인

※관피아 전체 현황: (명목) 389/533개 직위(73%), (실질) 362/504명(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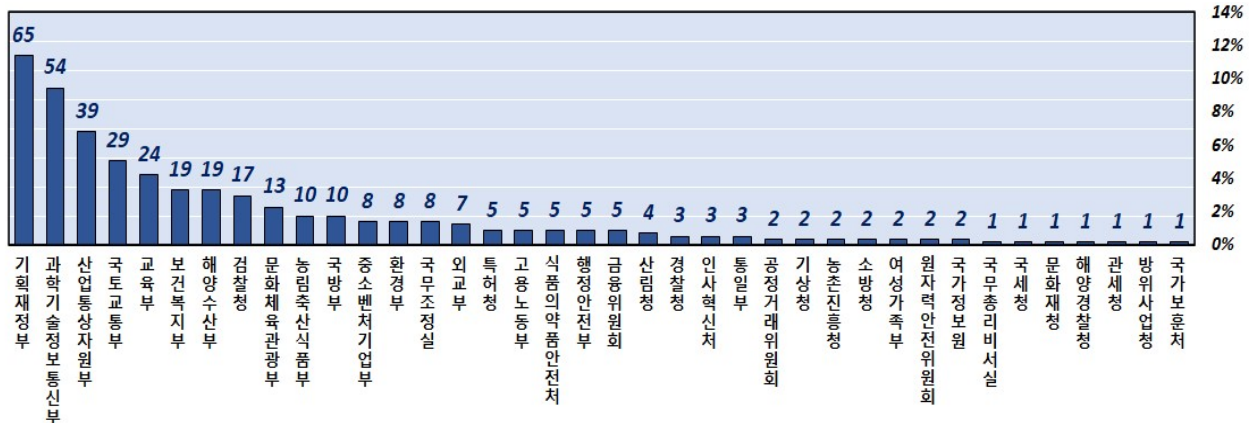
#### 조사방법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행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자, 공공기관장, 비/상임이사·감사 등 전체 533개 직위자 504명(2022.6.13. 기준) 대상으로 프로필, 인사보도자료, 알리오 및 닥트 경영공시 시스템 정보 등을 수집하고, 낙하산·회전문 인사 389명을 출신별로 분류하여 각종 통계분석 진행

### ■ (관피아 세력도) 출신부처별 산하기관을 포함한 관피아의 고위공직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1위 기재부(모피아, 12%) > 2위 과기부(과피아, 10%) > 3위 산자부(산피아, 7%) 순으로 윤석열 정부 내 절대다수 세력을 형성 <참고2>

#### <참고2> 출신부처별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 세력도 (2022년)

- 윤석열 정부 내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주무 부처기준 직위 점유수(개) 및 전체(533개)직위 대비 점유율(%) -



※ (상위 25% 부처별 점유율) 1위 기재(12.2%), 2위 과기(10.1%), 3위 산자(7.3%), 4위 국토(5.4%), 5위 교육(4.5%), 공동6위 복지·해수(3.6%), 8위 검찰(3.2%, \*검사 2.6%[14명]), 9위 문체(2.4%), 공동10위 국방·농림(1.9%), 공동12위 국무·중기·환경(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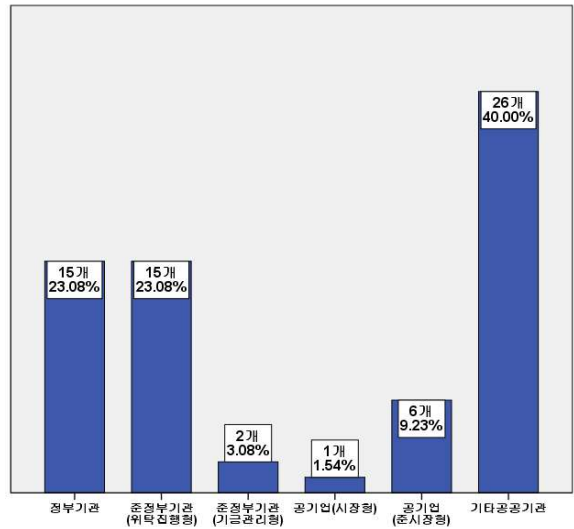
● (예산지원) 윤석열 정부가 293개 관피아 기관장들에게 지원할 2022년 예산규모는 총예산(710조6,076억원)의 86%인 608조4,153억원, 모피아 기관장에게는 4.7%인 33조 6,560억원 규모(6위), 1개 기관당 모피아 예산지원액 전체평균 대비 4.4배 수준(5위)

● (보수지급) 동기간 관피아 377명에게 지급할 보수는 총보수(694.2억원)의 73%인 504.5억원 (총예산의 0.01% 규모), 모피아에게는 5.9%인 41억2,922만원 지급 예정 (3위)

■ (모피아 분포) 윤석열 행정부 내 10개 정부기관 15개 직위 및 44개 공공기관 50개 직위 독과점

<참고3>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행정부(좌) 및 공공기관(우) 모피아 분포도

- 고위공직/기관장급 기재부 출신자 인원수 및 직위수 - \*단위: (좌) 인원수 / (우) 직위수(검적조합)



● (정부기관 내) 모피아 12% (15/123명)

■ (국무총리) 한덕수(행시8) 盧정부 경제부총리

**주요논란**

- ⊗ S-Oil 사외이사(2021-2022) 고액보수 논란
- ⊗ 한국무역협장(2012-2015) ▲ 日 王생일파티 참석 논란, ▲ 특급호텔 헬스장 무상이용(김영란법 위반) 논란
- ⊗ 주미대사(2009-2012) ▲ 업추비 골프비, ▲ 배우자 후원특혜 논란
- ⊗ 김앤장 고문(2002) 론스타 게이트 연루(변호사법 위반) 논란

지원예산 6,559억원 연봉 1억 8,959만원

● (공공기관 내) 모피아 12% (50/410개)

■ (기재부산하) 모피아 회전문 인사 4명 독점

< 한국재정정보원 >

- 15. 원장 박용주(행시24), 기획예산처 출신, 퇴직후 재취업
- 26. 상임이사 윤채영, 기재부 기획조정실 퇴직후 재취업
- 31. 비상임이사 남봉현(행시29) 기재부 퇴직후 인천항만공사 사장 역임 등 재취업
- 35. 비상임이사 나주범(행시35), 기재부 現규장 당면 이사직 검직

지원예산 689억원 총연봉 3.2억원 1인당 7,968만원

■ (대통령실) 모피아 회전문 인사 4명 절대다수

3. 비서실장 김대기(행시22), MB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

**주요논란** SK, 한화, 두산, 맥쿼리 사외이사 (2013-2022)

지원예산 478억원 (국가보실 50% 제외) 연봉 1억 3,942만원

6. 경제수석 최상목(행시29), 차정부 금융경제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

**주요논란** ⊗ 차·최순실 국정농단 미르재단 출연·위증 논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의혹 ⊗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추진 등

차관급 고정급 연봉 1억 3,540만원

22. 기획비서관 박성훈(행시37, 사시43), 前부산시경제부시장/국힘소속

1급상당 직무급 및 12%상여금 연봉 1억 977만원(추정)

23. 경제금융비서관 김병환(행시37), 대통령실 부산출신자 “트리오”

2급상당 직무급 및 12%상여금 연봉 9,598만원(추정)

■ (타부처산하) 17개 비상임이사직 “문어발” 검직

37. 기재부 현 심의관 겸 17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한경호(행시36)

소속기관	관리예산(원)	연봉(원)
기획재정부	-	82,044,48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72,093,000,000)	4,148,0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21,746,000,000)	7,000,0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1,697,000,000)	900,000
경북대학교병원	(35,137,000,000)	1,333,000
충남대학교병원	(32,420,000,000)	675,000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1,748,000,000)	900,000
충북대학교병원	(30,876,000,000)	600,000
한국고전번역원	(22,493,000,000)	1,500,000
전북대학교병원	(20,564,000,000)	0
전남대학교병원	(18,738,000,000)	1,200,000
제주대학교병원	(8,887,000,000)	600,000
강원대학교병원	(6,515,000,000)	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2,711,000,000)	0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025,000,000)	360,000
부산대학교병원	(1,032,000,000)	0
경북대학교치과병원	(750,000,000)	400,000
한국사학진흥재단	(0)	8,000,000
합계	총 1.1조 원	총 1.1억 원

■ (기재부 내) 모피아 회전문 인사 3명 독점

2. 장관겸경제부총리 추경호(행시25), 차정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제1차관

**주요논란** ⊗ 재정부 은행제도개정(2003-2006) 론스타게이트 승인

⊗ 딸 공공기관 채용특혜 의혹 ⊗ 정치자금 월세·관리비 납부 논란

지원예산 29.6조원 연봉 1억 4,335만원

9. 제1차관 방기선(행시34), 차정부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 총괄

차관직 고정급 연봉 1억 3,540만원

10. 제2차관겸 6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최상대(행시34), 재정준칙(예정)

(합계) 관리예산 총 29.8조원 연봉 총 1억 5,648만원

■ (금융위원장) 모피아 낙하산 후보자

**주요논란** ⊗ 예금보험공사 사장시절 (2012-2015)

▲ 저축은행사태 채권회수 부실, ▲ 예보기금 BIS부실 저축은행 지원 “배임” 논란, ▲ 차정부 예술계 블랙리스트 채무·지원관리 논란 (국회 속기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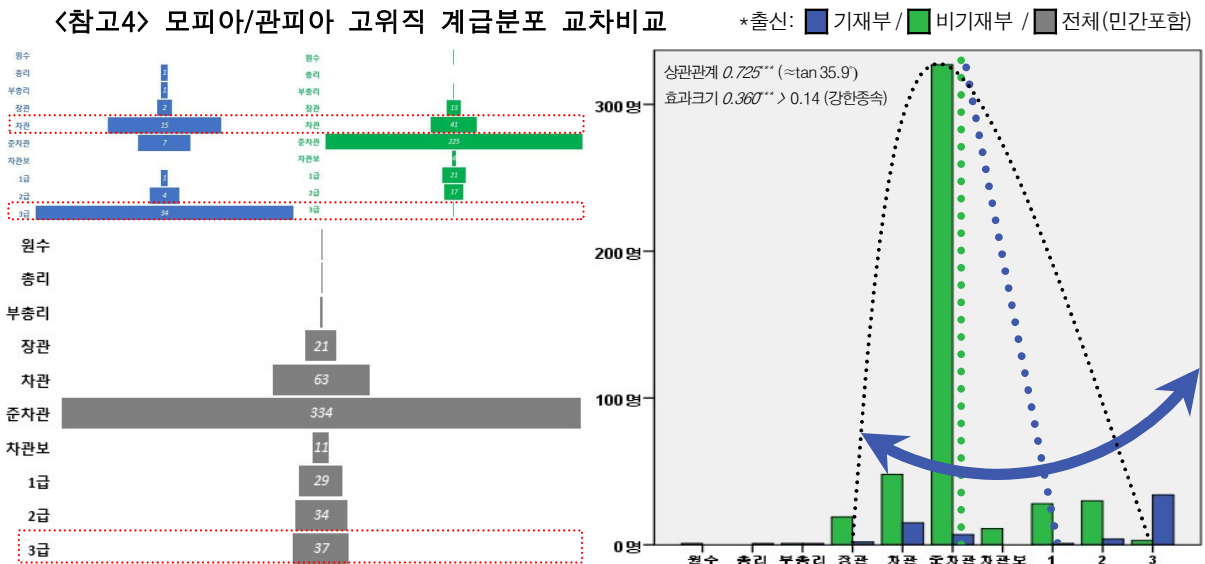
⊗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이사직 자리 만들기 재취업 및 고액연봉 “먹튀” 논란

⊗ 론스타 게이트 개입 실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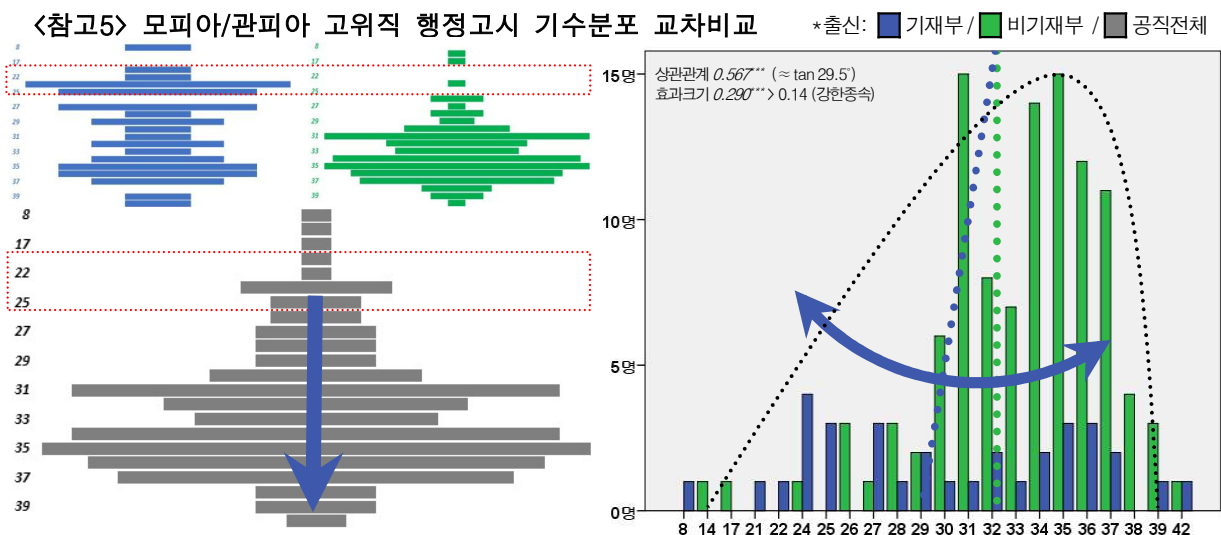
김주현 (행시25) 現여신금융협회장, 카드·대부업계 대관업무 수행중

● (권력분포) 모피아의 경우 비교적 중간권력이 적어 집단 내 권력 격차가 크고, 관피아 세력간 ‘비대칭(피라미드)’ 권력구조에서도 상당수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강한 “상명하복(종속)” 관계를 보임

■ (계급) 기재부 출신들의 경우 비교적 행정부 내 총리·부총리·차관 등 소수의 고위계급도 많고, 3급상당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직 등 다수의 하위계급도 많아 특정계급(3급)이 하위집단을 대체하는 등 양극단에 계급분포가 상당수 집중돼있어서 평균·중간계급(준차관·차관보)이 적은 형태 <참고4>



■ (행시) 모피아(37명, 평균 29.1기)의 경우 중간기수 25기, 최다(최빈)기수 24기 등 특정기수가 상위집단을 대체하고 비교적 상위분포 내 상당수 집중돼있어서 평균·중간기수가 적은 형태 <참고5>



※ (행정고시 출신 고위직 관피아 전체 기수분포) 35개 부처 168개 직위자 141명, 전체평균 32.4기, 최빈 35기, 최소 8기(국무총리), 최대 42기(국토부 2명), 중위집단 내 최소평균 금융위(27.1기) / 최대평균 농림부(36.8기)

∴ (상명하복관계) 공통적으로, 비대칭 권력관계에서 모피아 상당수(장차관급, 행시 24, 25기)가 고위공직 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의 우위까지도 독차지하고 있어서 모피아의 지배 아래 종속될 위험 높음

※ (기타 연공서열) 기술고시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연령 및 사법고시의 경우 신뢰를 추정하기 어려움. 외사·입법고시, 군인의 경우 극소수

● (회전문 인사\*) 관피아 10명 중 4명, 모피아 10명 중 7명  
 풀로 퇴직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자 고위공직 재취업 <참고6>

- (기재부) 직위 · 인구수 대비 66% (25/38)
- (비기재부) 직위 · 인구수 대비 38% (159/324)

\* (판별기준) 회전문 인사 [Revolving door]: 입법과 규제 역할을 하는 고위공직자가 그 영향을 받는 민간산업과 공직사회 사이에서 인사이동을 일컫는 용어로, 공직 퇴직후 민간기업 · 협회 · 단체 등에 취업하여 로비스트로서 대관업무 등을 하다가 다시 공직으로 재취업하거나 재임용되는 것 ☞ 퇴직후 고위공직 재취업자

(캠코더 인사) 경력관리용 비상임이사·감사직 사례多  
 (이해상충 우려)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경우 민간기업  
 감사·사외이사를 거쳐 공직에 재취업하는 사례多

<참고6> 윤석열 정부 회전문 인사

- 비/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간 교차비교 -



<참고7>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 비/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간 교차비교 -



● (낙하산 인사\*) 관피아 10명 중 6명, 모피아 10명 중 8명  
 풀로 타 부처 내 고위공직, 기관장직, 비/상임이사·감사직 겸직 또는 재취업 등 낙하산 내정자 <참고7>

- (기재부) 직위수 대비 86% (56/65개), 인구수 대비 76% (29/38명)
- (비기재부) 직위 · 인구수 대비 59% (192/324)

\* (판별기준) 낙하산 인사: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에게 기관장 등 공직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무시하고 고위관직을 분배하는 관례를 일컫는 비유적인 말로 “천상에서 내려온 신(天下り): 낙하산 인사,” 개인의 능력 · 실적 · 전문성에 반하는 인사제도 ‘업관제 [Spoils system]’ 와 유사한 말 ☞ 타부처 고위공직 재취업자

(전문성 우려) 모피아의 경우 타부처 낙하산 인사多  
 (정책기능 상실) 문어발식 겸직 등 전문성 불일치 사례를 감안하면 정상적인 직무수행 기대가능성無

● (관련분야) 고위공직 모피아의 경우 출신부처 등  
 유관기관 경제분야 직무 관련성 50% 수준 <참고8>

- (전문성 일치) 재정세재 > 금융 > 경제일반 등의 순으로 비교적 높은 유관성(종속성)과 독과점을 보임
  - (전문성 불일치) 과학기술 > 교육 > 국토교통 등의 순으로 비교적 유관성이 낮고, 타 부처 관피아 세력들과 독과점 경쟁
- ☞ (실질) 교육분야 등 당연이사직 제외 68% 일치

(직무 관련성) 최소 절반이상 “정량적 일치” 추정

※ (관피아 전체 일치도) 총 24개분야 직무 관련성 40% 일치 (#별첨 15면 참조)  
 (직무별 관피아 독점현황) 공동1위 국방·금융(각각 92.9%) > 3위 산업통상(89.6%) > 4위 국토교통(86.0%) > 5위 교육(85.4%) > 6위 행정(85.0%)

<참고8>모피아 직무 점유율과 관련성

- 분야별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 점유율 교차검정 결과 -

\* 표식: ■ 직무점유(수, %), □ 불일치 설명변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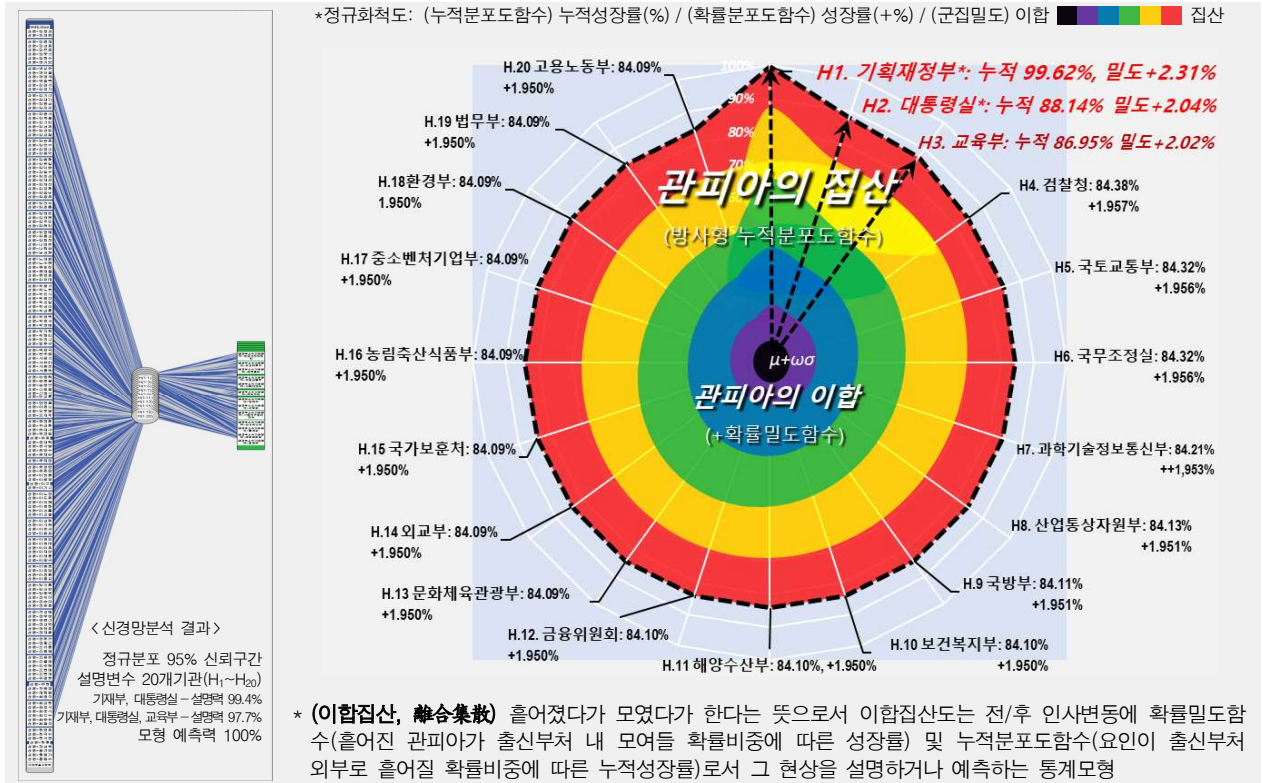
상관관계 0.497\*\*\*

■ (위험도 측정) 위 내용을 종합, 고위직 관피아 회전문/낙하산 인사 변동에 따른 출신부처 내/외 이합집산도 및 균형위험도를 측정한 결과, 1위 기재부 > 2위 대통령실 > 3위 교육부 순으로 권피아 세력의 이합집산이 잦고, 민간과의 권력격차에 따른 불균형 역시 심화

- (이합집산도\*) 관피아 세력별 분산과 집중에 따라 출신 부처 내·외 산하기관을 포함한 이합집산이 잦은 정부기관을 추산한 결과, 기재부(99.62%) > 대통령실(88.14%) > 교육부(86.95%)로 나타남 <참고9>.

<참고9> 고위직 관피아 회전문/낙하산 인사 변동에 따른 출신부처 내/외 이합집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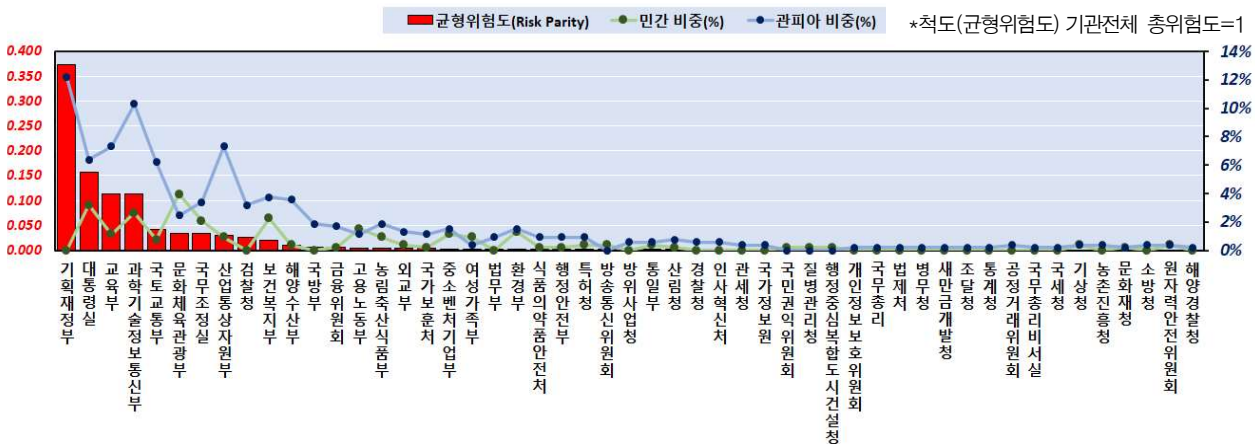
- 윤석열 행정부 내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방사형 누적분포도합수 중요·설명변수 시계열순(H1~H20) -



(신경망분석 결과) 기재부 등 상위 3개 기관들은 출신여부가 회전문/낙하산 인사(내정)를 결정하는 중요변수, 그 밖에도 17개 출신 기관들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균형위험도) 기관별 관피아와 민간과의 직위 점유율 격차에 따른 불균형을 측정한 결과, 기재부(0.373) > 대통령실(0.157) > 교육부(0.113) > 과기부(0.112) 순으로 추산 <참고10>

<참고10> 윤석열 정부 내 고위공직 관피아와 민간 간의 균형위험도



(예산완박 효과) 향후 타부처 예산 약 231.4조원이 모피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

##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각 구성을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획재정부 출신(소위 “모피아 [MOFIA<sup>1)</sup>”)들이 정부 주요 요직과 공공기관장직 전체의 12%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표3>. 행정부 및 공공기관 내 이사직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기관장급(3급이상) 관피아<sup>2)</sup>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 산업통상자원부 7.3% 순으로 다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검찰세력의 경우 3.2% 수준으로 모피아의 1/4 규모이다 <도표 18, 19>.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모피아의 진출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한덕수(전 경제부총리 겸 구 재정경제부장관, 2005.3.~2006.7.), 경제부총리 추경호(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3.3~2014.7), 그리고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주현(구 재정경제원 출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부록1의 1, 2, 4). 이들 모두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 게이트 (2003-현재)’ 사건<sup>3)</sup>과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경실련 등, 2022).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2003.3.~)으로 근무하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할 수 있도록 ‘예외 승인’을 하는 데 직접 관여하였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실무자로서 참여한 바 있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당시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2002.11.~2003.7.)으로 잠시 재직하면서 론스타 측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소송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였고, 그 대가로 론스타로부터 김앤장이 관련 고문료 2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2022).

1) 구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

2) ‘관피아’란,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말함 (경실련, 2022). 소위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를 지칭하는 말.

3) 론스타 게이트 사건은, 지난 2003년 미국계 부동산투자 전문 헤지펀드인 론스타(Lone Star)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을 부실 은행으로 분류되어 헐값에 매각된 사건이다. 2012년 결국 하나금융에 다시 매각되면서 론스타는 약 4조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2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 중에 있음.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상충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시절 부실 저축은행 채권 미회수 등 “배임” 논란이 있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비롯,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공적인 한국수출입은행장 직을 포함하여 향후 고위공직자/기관장급 모피아는 향후 39명, 66개 직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력면에서, 행정부와 공공기관 내 모피아의 점유율이 높지만 타 부처나 그 산하기관에 퍼져있어서 모피아 세력의 분포나 크기,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처럼 잘 들어나지 않는다. 다른 관피아 세력들과 달리, 주무 부처나 산하 공공기관에만 모여있지 않고 타 부처나 그 산하기관에도 다수 퍼져있기 때문이다 <도표14, 16(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6.13. 기준 전/현직 모피아 38명 중 29명(실질기준 76%)이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 내 산하기관장직 등에 내정(소위 “낙하산 인사”)되었다 <도표15>. 대부분의 경우 타부처 예산재정이나 공공기관 부채관리 문제 때문일 것이다. 모피아들이 내정된 65개 직위 중 56개 직위(명목기준 86%)가 이처럼 타 부처의 차관직이나 그 산하 공공기관장직 또는 이사직에 해당한다. 특히 경제권력을 쥐고 있는 전/현직 모피아들의 경우 다른 관피아들과 달리 타 부처 내 재정준칙(소위 “예산완박”) 등의 목적으로 기관장이나 특히 비상임이사에 내정된 사례가 유난히 많다. 실례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경우 타 부처 산하 6개 공공기관, 현직 국장의 경우 1개, 어떤 심의관의 경우 5개를 겸직하고 있었다 (부록1의 10, 35, 36). 아무리 당연 이사직이라고 하지만, 심의관 한 명이 17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직을 동시에 겸직하는 것은 상식적인 정책기능의 범위에서도 벗어난다 (부록1의 37). 적어도, 다른 관피아 세력들의 경우 그런식으로 겸직하는 법은 없다.

또한 전직 모피아 38명 중 25명(66%)은 ‘회전문 인사(공직 퇴직 후 재취업)’에 해당한다 <도표25(우)>. 물론, 재정세제, 금융, 경제일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도표16(우)>. 하지만 민간에서도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적지 않고, 시장이 형성돼 있는 금융의 경우 전문가들이 많다. 그래서 전문성만으로 오늘날 공직사회 내 전/현직 공직자들을 회전문 인사로서 재임용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없



다. 직전 문재인 정부나 이명박, 박근혜 등 이전 정부에서 퇴임했던 장관급 고위공직 모피아 대부분 재취업한 기관의 업무 연관성이나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연공서열이나 같은 전직 기재부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기관장, 사장, 이사장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이처럼 관피아 전체 10명 중 4명(159/389개)꼴로 퇴직 후 윤석열 정부 들어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도표25(좌)>. 고위급 관피아는 공직사회 내 현재 73%를 차지하고 있다 <도표1>.

그 이유는, 공직 출신여부가 재취업 등 임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모피아의 경우 다른 관피아 세력들보다 특히 계급이나 출신여부에 종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윤석열 정부 및 공공기관 내 기관장급 고위공직 총 533개를 교차분석 한 결과, 모피아는 계급에 0.725 수준의 강한 종속성을 나타냈다 <도표6(우)>. 반면, 다른 관피아 세력들의 경우 0.289 수준의 약한 종속성을 보였다. 또한 모피아는 행정고시 기수서열 관계에서도 0.567 수준의 종속성을 보인 반면 <도표8>, 다른 관피아 세력들의 경우 종속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도표7>. 중간기수에 권력이 집중된 다른 관피아 세력들과는 달리, 모피아의 경우 기수나 계급 등 권력분포에서 있어서 중간 권력이 적고 양극단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피아의 경우 가장 “늙은” 기수를 회전문 인사로 고용하는 등 집단 내 비교적 권력 격차가 크고 권력분포 면에서 현재 검찰집단(<도표 9>)보다 더 ‘상명하복관계’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고시 24, 25기를 중심으로 향후 모피아의 실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모피아는 이처럼 이합집산이 잦은 세력중 하나이다. 정부에서 부르면 모이고, 정부에서 시끄러우면 다시 흩어지고. 때문에 권력을 특정하여 그 분포와 분산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윤석열 정부 첫 내각과 기획재정부 인맥도를 규명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533개 직위자의 공직경력 등 프로필을 분석하여 출신별 관피아 집단과 모피아를 특정하였고 <도표1~3>, 연공서열, 전문분야, 출신기관 등을 종속변수로 가정하고 출신집단별 분포에 따라 종속성 차이가 있는지 교차검증하였다 <도표 4~17>. 이를 바탕으로 상위 1/4분위 내 세력별 직위 점유, 예산, 보수를 측정하여 권력순 세력도를 작성하였다 <도표 18~21>. 또한 관피아의 분산과 집중도를 비중간 표준편차를 방사형 누적분포

도함수로 측정하여 이합집산도를 작성하고 <도표22~23>, 민간과 관피아 간의 불균형과 관피아 집단 내 변동성을 균형위험도(Risk Parity)로 측정하였다 <도표24>. 프로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중응답 및 문헌조사 <도표25~27>, 그리고 신뢰도 사후검증을 하였다 (부록2).

결론적으로는, 모피아에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제권력이 집중되어 공직사회 내 분산되어 있는 만큼 우리사회에 끼치는 파급력 또한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고, 금융정책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정부조직법」 제2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그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즉, 조세권과 예산권, 국제 금융정책 등을 비롯한 경제정책 전반과 공공기관까지 관장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권력의 문제는 권한의 남용은 물론 정책기능간 이해상충, 부패고리 등의 많은 문제를 향후 양산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국제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함으로써 정책이 양분돼 있어서 이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여전히 비효율성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반면, 과거와 같이 조세, 재정, 예산권을 모피아가 독점함으로써 재정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박용석, 2022). 윤석열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는 겉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세 인하,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부자감세 기조를 택하고 있어서 정책간 모순도 발생하고 있다. 그 위험은 모두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끝으로, 고위공직자의 권력 집중은 공직사회 내 비합리성을 확산시킨다. 모피아 역시 비정상적인 경제권력으로 공직에 있을 때는 재취업 자리를 염두에 둔다. 관련조사에 따르면, 최근 5개년(2016년~2021년 8월) 기획재정부 4급이상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승인률은 96.8%(30/31명)로 조사된 바 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이러한 재취업(유형: ①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

업, ②재벌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③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 취업, ④기재부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서도 타인의 전문성과 취업의 기회를 박탈시킨다. 적어도, 공직사회 내 자기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자리의 권력을 침탈하는 등 낙하산, 회전문 인사 관행은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모피아를 개혁대상 1호로 삼고, 민간 경력자에게 개방하여 경제권력의 균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 역시 ‘십상시(十常侍)’마냥 모피아의 경제권력으로부터 예외 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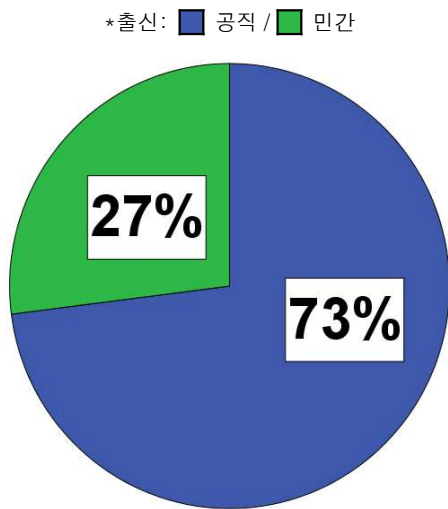
- 조사목적** 윤석열 정부 내 기획재정부 출신자들의 권력·인맥·관계도를 규명하고 관피아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 조사기간** 2022.5.27. ~ 2022.6.27.
- 조사대상** 총 545개 직위 중 공석을 제외한 나머지 533개 직위  
- 행정부 장·차관  
- 산하 공공기관 준차관 및 이사직
- 조사내용** 기관별 기획재정부 출신자 확인 및 명단 작성 (부록1)  
기본 인적사항, 연공서열(계급, 기수, 호봉), 학력사항, 직위기관 내 분야·예산·보수 확인 및 전문성과의 관련성 확인  
정부·정치·민간 경력사항, 경력별 주요 활동, 사건·사고 정성평가 관련 문헌조사
- 표본수집** 네이버 프로필 검색: <https://www.naver.com>  
언론사 DB 인물검색  
- 조선일보: [http://cdb.chosun.com/search/db-people/\\_common/index.jsp](http://cdb.chosun.com/search/db-people/_common/index.jsp)  
- 연합뉴스(헬로 아카이브): <https://www.helloarchive.co.kr/person>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검색: <https://www.alio.go.kr>  
관련 기관별 홈페이지 내 기관장 약력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검색: <https://dart.fss.or.kr>  
- 관련 민간기업별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인사보도자료 및 인터넷 검색
- 통계분석** 모집단 분석, 빈도·교차·분산 분석, 이합집산도 측정, 균험위험도 추정, 다중응답, 문헌조사, 분석방법 및 사후검증 (부록 2)

## 조사결과

### 1. 현황

□ (관피아) 행정부 및 공공기관 내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는 73%로 확인됨.

<도표1>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 비중



○ (명목) 행정부 및 공공기관 조사대상 직위 기준 총 545개 중 공석 12개를 제외한 389/533개(73%)의 직위자들이 행정부 및 공공기관 출신자들로 확인됨 <도표1,2>.

- (실질) 겸직을 제외할 경우 실제 인원수 기준 전/현직 재취업 관피아는 362/504명 (72%)로 확인됨.

※ 국가 연구기관 및 국립대학 교수 출신들을 민간 출신으로 간주하더라도, 전체의 56% (299/533개)가 전/현직 관피아에 해당.

<도표2> 고위공직/기관장급 출신 구성

단위: 개(명), 백분율, 괄호(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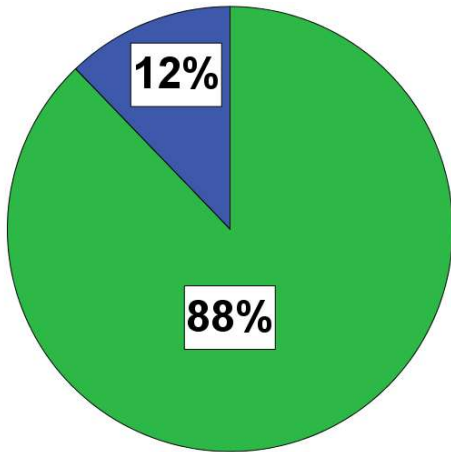
집단	공직 출신 73.0% (389/533)														민간 출신 27.0%(144/533)							
	행정고시	기술고시	검사	외무고시	4급	5급	7급	9급	비고시	기타*	군인(육·해상)	경찰	소방	공공기관	학계(공공기관)	학계(사립대)	개인·단체	정치	기업	언론	종교	
명목 (실질)*	168 (141)*	24	14	8	2	2	5	4	11	12	8	5	2	34	90	57 (56)*	32	20 (19)*	19	14	2	
비중 (%)	31.5 (28.0)	4.5 (4.8)	2.6 (2.8)	1.5 (1.6)	0.4 (0.4)	0.4 (0.4)	0.9 (1.0)	0.8 (0.8)	2.1 (2.2)	2.3 (2.4)	1.5 (1.6)	0.9 (1.0)	0.4 (0.4)	6.4 (6.7)	16.9 (17.9)	10.7 (11.1)	6.0 (6.3)	3.8 (3.8)	3.6 (3.8)	2.6 (2.8)	0.4 (2.8)	
사법고시 (17)*	(2)*		14	(1)*																		
입법고시 (1)*	(1)*																					
겸직 (29)*	27*															1*		1*				

\*주석: 1) 실질(명) = 명목(개) - 겸직(개); 2) 공직출신 기타: 출신이 확인되지 않은 공직자

□ (모피아) 행정부 및 공공기관 내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공직/기관장급 모피아는 전체 직위의 12%로 확인됨.

<도표3> 고위공직/기관장급 모피아 비중

\*출신: ■ 기재부 / ■ 비기재부



○ (명목) 65/533개(12%) 직위자들이 기획재정부 출신들로 내정됨 <도표3>. 관피아 중 17% (65/389개)가 모피아에 해당.

- (실질) 겸직자를 제외하면 38/504명(7.5%)의 전/현직자들로 구성됨 (부록1). 관피아 중 10.5%(38/362명)가 모피아에 해당.4)

(명목·실질) 행정부 내 모피아는 15/123명으로 12%와 동일한 수준.

4) 금융위원장 내정자(부록1의 4. 김○○)를 포함한 통계 수치임을 알림.



## 2. 분포 및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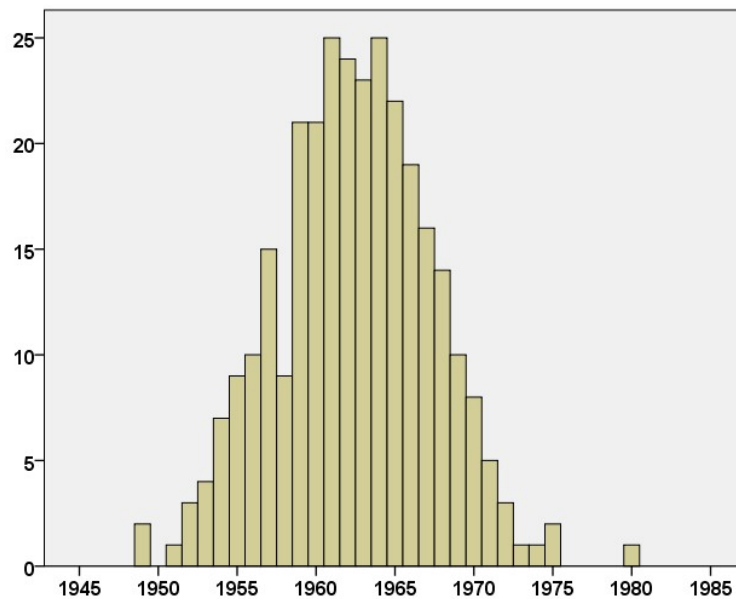
### □ 연공서열별

#### ○ 연령별

- (분포) 533개 직위자 중 총 301명 평균 61세(1962년생)로 집계됐으며, 1961년생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음. 이 중 최고령자는 74세(1949년생, 부록1의 1. 국무총리 등 2명)로 확인됐으며, 가장 젊은 사람은 43세(1980년생)으로 확인됨 <도표4>.

<도표4> 행정부 및 공공기관 고위공직자/기관장 출생년도 분포

\*단위: (좌) 명 / (하)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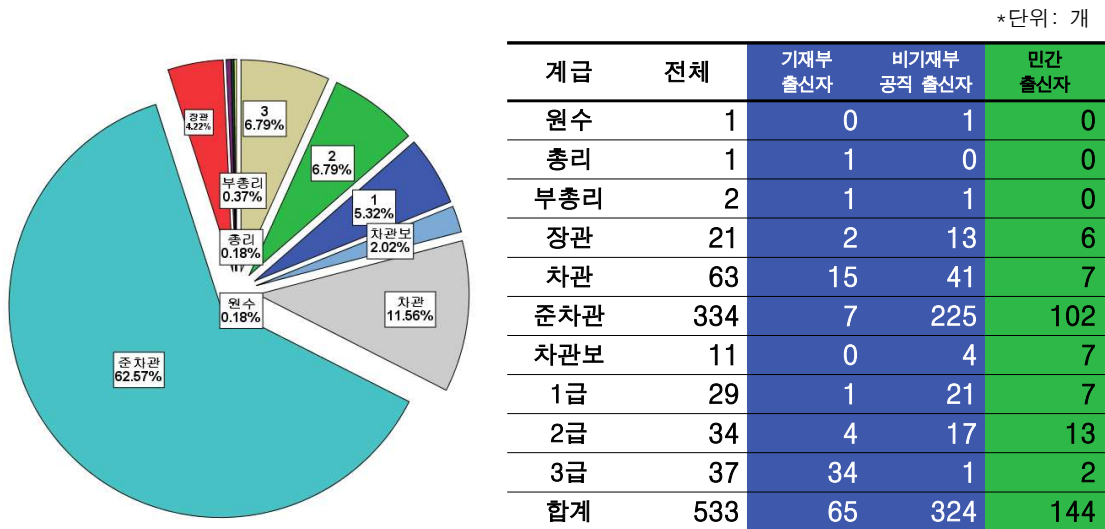
실질통계 \*주석: 이하 특별히 교차분석하지 아니한 경우 종속성이 추정되지 아니함.

- (관계) 그러나 연령(출생년도)은 재취업을 결정할만한 신뢰 있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모피아를 비롯한 출신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도 추정되지 아니함.

○ **계급별**

- (분포) 공공기관 준차관급 직위가 334개로 가장 많았으며, 원수·총리·부총리·차관보·3급 직위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도표5>.

<도표5> 행정부 및 공공기관 고위공직자/기관장 계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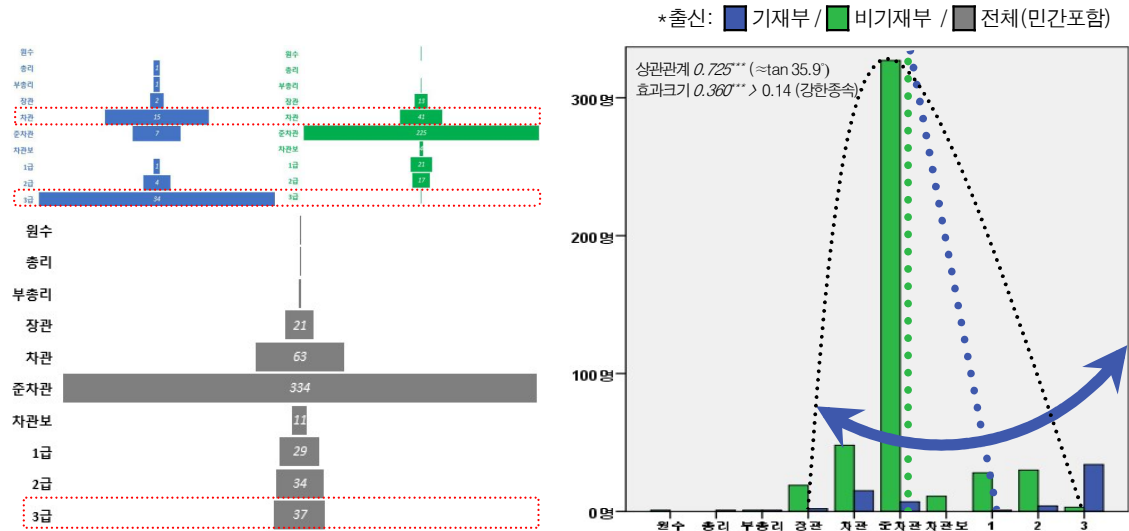
\*주석: 1) 순서척도 및 등간척도 검증 모두 동일한 결과(CV값)  
 2) 결직의 경우 높은 계급을 기준으로 집계 (부록1의 10. 제2차관)  
 3) 공공기관 이사장을 제외한 민간출신 이사직의 경우 모두 3급으로 일괄 분류.

비기재부 공직출신 종속성=0.289\*\*\*  
 기재부 출신 종속성=0.725\*\*\*

- (출신부처내 계급관계) 관피아 집단 전체 종속성(0.289)과 비교하여 모피아 집단이 높은 계급에 대해 보다 2.5배 강한 종속성(0.725)을 보임. 즉, **상명하복관계**가 나타남. 모피아의 경우 다른 출신집단들 보다 준차관(공공기관장)급 계급분포가 적은 반면, 차관급(행정부 고위 공직) 및 3급 계급분포가 비교적 많아 뚜렷한 차이를 보임.
- 모피아의 경우 비교적 행정부 내 총리·부총리·차관 등 소수의 고위계급도 많고, 3급상당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직 등 다수의 하위계급도 많아 특정계급(3급)이 하위집단을 대체하는 등 양극단에 계급분포가 상당수 집중돼있어서 평균·중간계급(준차관·차관보)이 적은 형태의 계급분포를 갖고 있음 <도표6>.



<도표6> 모피아/관피아 고위직 계급분포 교차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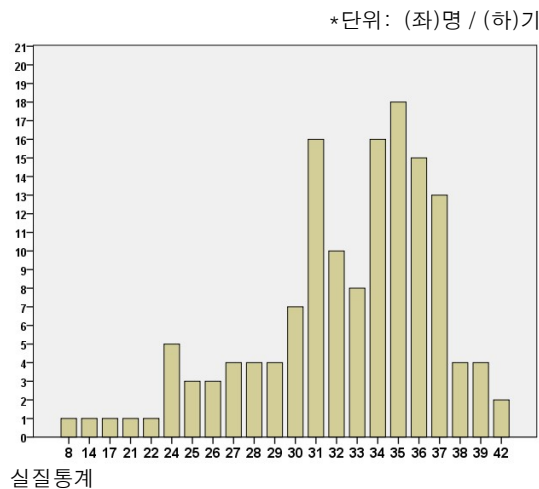
- 이는, 비대칭 권력관계를 감안하더라도, 모피아의 경우 비교적 중간 권력이 적어 집단 내 권력 격차가 크고, 관피아 세력간 ‘비대칭(피라미드)’ 권력구조에서도 상당수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분포의 형태나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 강한 “상명하복(종속)”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소속부처간 승급관계) 전/후계급 변화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모피아를 비롯 출신집단별 고위공직자간 승급에 따른 차별을 보이지 않음.
- ※ 대부분의 회전문 인사의 경우 직전 계급이 더 높았음 (예: 행정부 전 장관 → 산하 공공기관 현 준차관). 민간의 경우 직전 계급이 없으므로 교차검증 불가.



○ 행정고시 기수별

- (분포) 35개 부처 내 행정고시 출신자 총 141명(명목 168개)이 확인됨. 전체 평균기수는 32.4기로 집계, 이 중 35기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 기수는 8기 1명(부록1의 1. 국무총리)으로 확인됐으며, 가장 최저 기수는 42기 2명(모두 국토교통부 출신)로 확인됨. 행정고시 출신자가 절대다수였던 부처는 산업자원통상부(17명), 중위 범위 내 평균기수가 가장 높았던 부처는 금융위원회(27.1기), 반면 평균기수가 가장 낮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36.8기)로 확인됨 <도표7>.
- (관피아 세력간 서열관계) 상명하복관계에 종속되지 않음 <도표7>. 모피아와 달리, 다른 출신집단들의 경우 중간기수가 많아서 출신집단간 기수순서(등간척도)만으로 권력서열을 정할만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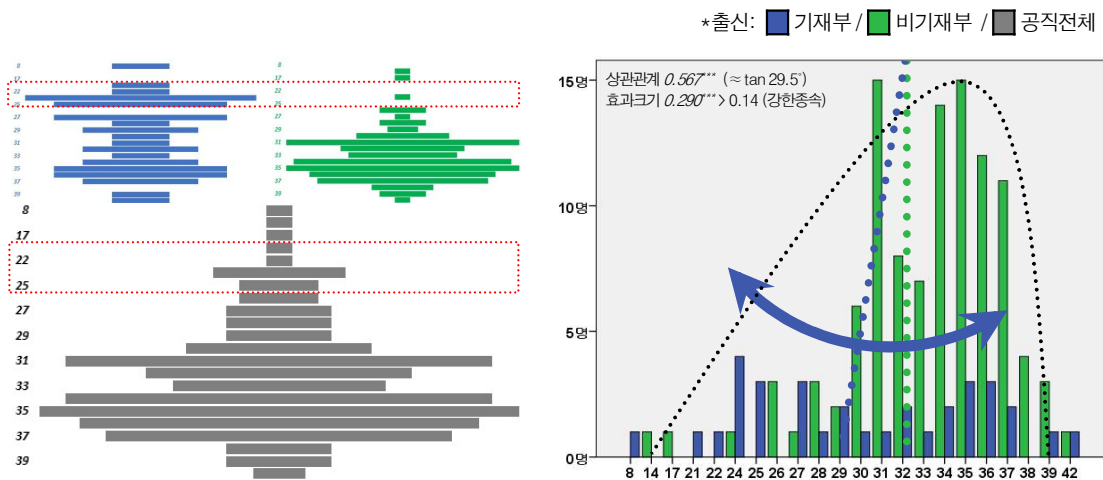
<도표7> 행정부 및 공공기관 고위공직/기관장 행정고시 기수 분포



- (모피아 집단 내/외 상명하복관계) 모피아 37명(평균 29.1기, 최빈값 24기)의 경우 양측 극단의 기수(최소 8기 ↔ 최대 42기)에서 다른 출신부처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즉, 모피아의 경우 중간기수에 해당하는 권력분포가 적고 양극단에 권력이 집중돼있어서 다른 관피아 세력들보다 집단간/내 더 큰 기수 격차를 보임. 특히 특정기수가 상위

집단을 대체하고 비교적 상위분포 내 상당수 집중돼있어서 평균·중간 기수가 적은 형태를 갖고 있음 <도표8 (좌)>. 이에 따라 모피아의 경우 다른 출신집단들에 비해 기수간 보다 종속성(CV=0.567)을 보임 <도표8 (우)>.

<도표8> 모피아/관피아 고위직 행정고시 기수분포 교차비교



∴ 계급분포 및 행정고시 기수분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비대칭 권력관계에서 모피아 상당수(장차관급, 행시 24, 25기)가 고위공직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의 상위까지도 독차지하고 있어서 모피아의 상명하복관계에 종속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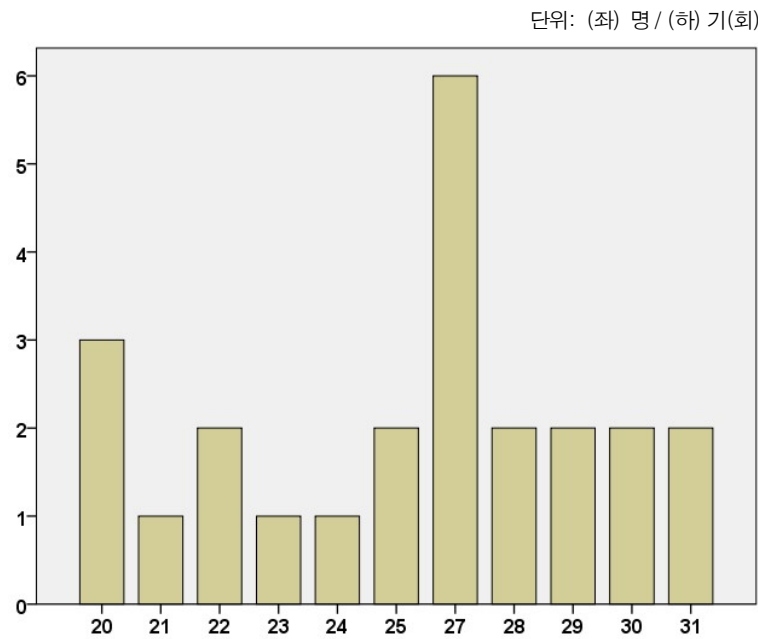
### ○ 기술고시

- (전체) 10개 부처 내 총 24명의 기술고시 출신자들이 확인됨. 평균 기수는 25.8기로 집계, 이 중 27기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 기수는 20기로 확인됐으며, 가장 최저 기수는 31기로 확인됨. 출신자가 가장 절대다수였던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4명)였으며, 중위범위 내 평균 기수가 가장 높았던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21.0기), 반면 평균기수가 가장 낮은 부처는 대통령실(30.3기)임 <도표9>.



- (출신부처간 서열관계) 서로 다른 출신부처간 기수순서(상명하복관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소속부처내 상명하복관계) 출신부처별로 봤을 때, 개별 부처 내 기수 서열을 정할 수는 있으나 그 사례 수가 적고 기수격차 또한 크지 않아서 상명하복관계를 신뢰할 수 없음. 모피아의 경우 단 한 명(부록1의 19. 원장)이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으나 서열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 다른 고등고시 출신들과의 서열관계에 있어서 연공서열(등간척도)을 가정할 수도 있으나, 신뢰할만한 종속관계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도표9> 행정부 및 공공기관 고위공직자/기관장 기술고시 기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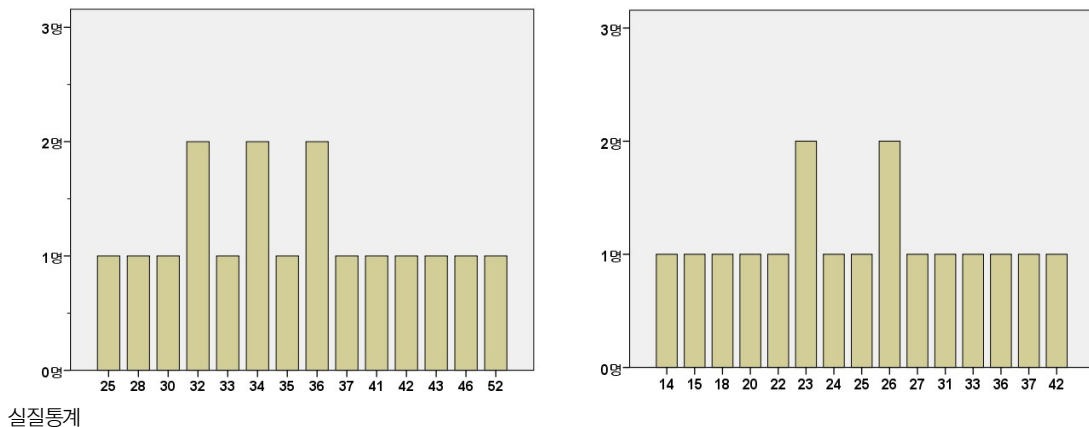
실질통계

○ 사법고시 / 연수원

- (분포) 총 17명의 사법고시 출신자들이 확인됨. 사법고시 출신 고위공직자/기관장은 실제 총 17/504명(3%, 실질)으로서 사법고시와 대표성이 없는 고등고시 동시 합격자 3명(행시 2명, 외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4/533명(3%, 명목)이 검사 출신에 해당함 <도표2>. 총 8개 기관에 분포해 있으며, 기수평균 36.2기, 연수원기수 평균 26.0기로 집계됨.

- (출신집단내 상명하복관계) 다른 고등고시와 달리, 사법고시 및 연수원 기수의 경우 특정 기수에만 권력이 집중돼 있지 않음. 행정고시나 기술고시와 달리,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신뢰할만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음.
  - (소속부처간 서열관계) 사법부 및 행정부 사법고시 출신자간 기수서열을 정할 수는 있으나, 신뢰할만한 종속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도표10>.
- ☞ 다른 고등고시 출신들과의 서열관계에 있어서 연공서열을 추정할 수 있으나, 신뢰할만한 종속관계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도표10> 행정부 및 공공기관 고위공직자/기관장 사법고시 기수(좌) 연수원 기수(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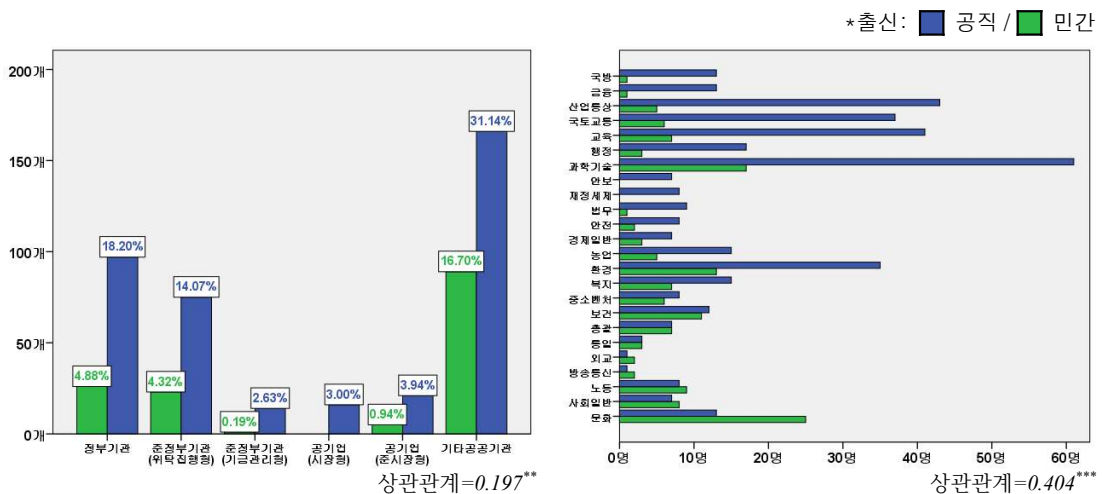
○ 그 밖의 공직출신

- 기타 다른 공공기관직 출신들의 경우 경력기간 외 연공서열(순서척도, 등간척도)을 측정할 수 없고, 한편 외무고시 8명 및 군인 8명(육사, 해사)의 경우 사례가 적어서 신뢰할 수 없고, 또한 고등고시 기수와의 권력순서(등간척도)를 정할 수 없어서 종속관계를 분석하지 않음.

□ 기관별 / 분야별 / 출신별

- (관피아) 전/현직 재취업 고위공직자/기관장은 정부기관 내 79% 를 차지, 공공기관 내 71%를 차지함. 출신 부처에 따라 직무 분야별로 차이를 보임.
  - (정부기관) 행정부 내 대통령실 2급이상 직위(실장, 수석, 비서관 등)를 포함한 장차관급 고위직 97/123개(79%)가 전/현직 공직자 출신들이 차지함 <도표11 (좌)>.
  - (공공기관) 공공기관 내 3급이상 직위(관장, 소장, 이사직 등)을 포함한 준차관급 기관장 직위 292/410개(71%)가 전/현직 공직자들이 차지함. 시장형 공기업 내 민간 출신자는 없고 이를 독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관형태별 약한 종속성(0.197)을 보임 <도표11 (좌)>.
  - (직무독점) 직무와의 유관성과 대표성에 따라 총 24개로 분류하여 전/현직 관피아의 독점성 및 종속성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공동 1위 국방 및 금융(92.9%, 각각 13/14개, 상관관계=0.86), 3위 산업통상(89.6%, 43/48개, 0.79), 4위 국토교통(86.0%, 37/43개, 0.72), 5위 교육(85.4%, 41/48개, 0.71), 6위 행정(85.0%, 17/20개, 0.70) 순으로 강한 독점관계를 보임. 과학기술(0.56) 외, 재정세제, 법무, 경제일반 분야 등의 경우 비교적 그 사례가 적어서 종속관계를 신뢰하기 어렵고, 그 밖에 분야들의 경우 민간출신들이 더 많거나 집단간 경쟁관계에 있음 <도표11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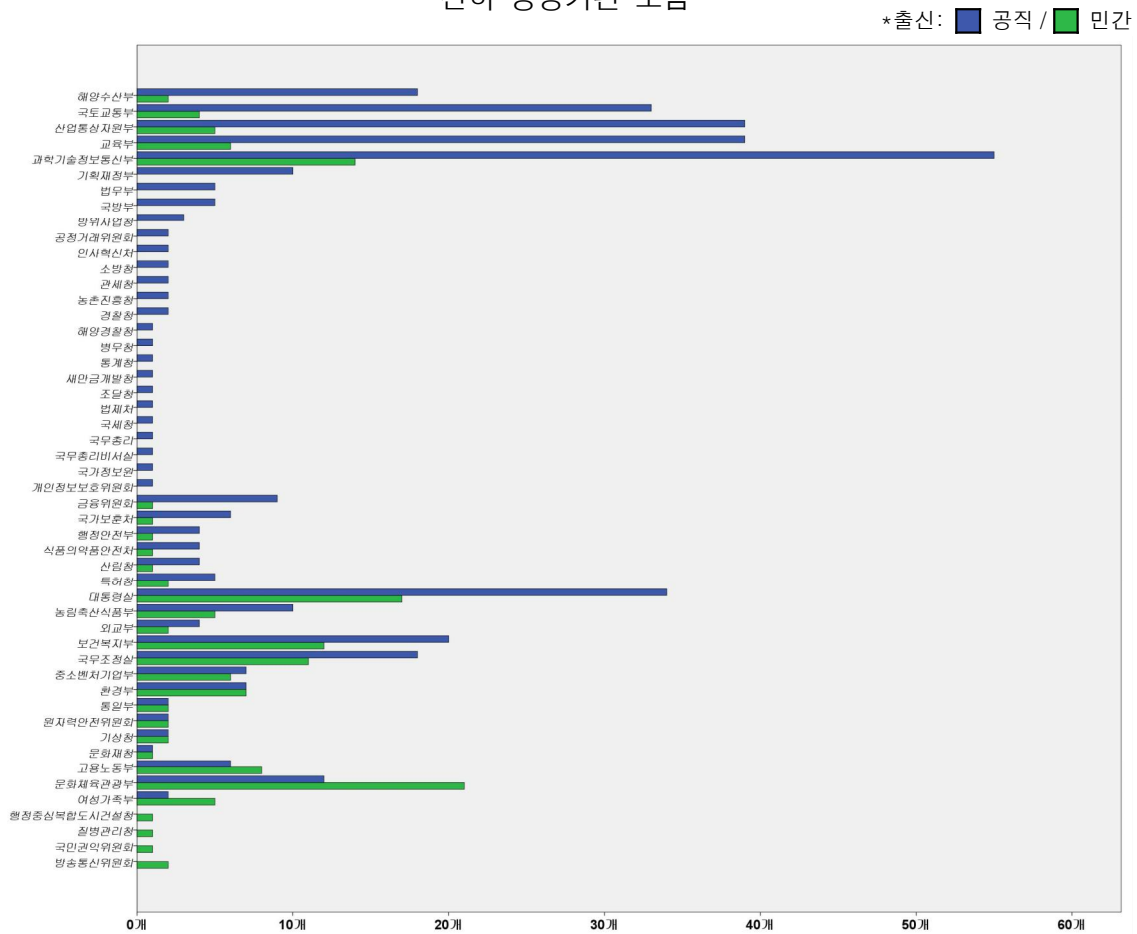
<도표11> 기관형태별 고위공직/기관장급 공직 및 민간 출신자 비중 비교(좌)  
 분야별 업무 유관성에 따른 종속성 순서(우)





- (출신관계 및 폐쇄성) 타 부처 출신을 불문하고 주무 부처 내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출신관계에 따라 전/현직 관피아들의 편중 및 종속성이 가장 높았던 주무 부처는, 1위 해양수산부(90%, 18/20개, 상관관계=0.8), 2위 국토교통부(89%, 33/37개, 0.78), 3위 산업통상자원부(88%, 39/44개, 0.77), 4위 교육부(87%, 39/45개, 0.73) 순으로 강한 종속성을 보임 <도표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0.59)를 제외한 해당 부처들은 직무의 유관성이나 전문성보다는 공직출신 유/무가 재취업을 결정하는 폐쇄적인 기관임. 물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의 경우 출신 부처 내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직위를 완전독점(100%, 1.0)하고 있으나, 비교적 그 사례가 적어서 종속관계를 신뢰할 수 없음. 그 밖의 나머지 부처들의 경우 비교적 민간출신들이 더 많거나 직위가 개방되어 있어서 출신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나 종속성은 없음.

<도표12> 주무 부처별 고위공직/기관장급 공직/민간 출신자 비중에 따른 종속성 순서  
- 산하 공공기관 포함 -



관피아 전체 상관관계=0.439\*\*\*

- (모피아) 전/현직 기획재정부 출신자들의 경우 행정부 내 10개 기관 15개 직위 및 44개 공공기관 50개 직위에 분포됨. 실질적으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재정세제, 금융, 경제일반 분야 직위를 독점하고 있음.
- (정부기관) 행정부 내 모피아는 15/123명(12%)으로서, 전체 기관 대비 12%(65/533개)와도 동일한 수준. 모피아의 수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대통령실(4명: 부록1의 3. 비서실장, 6. 경제수석, 22. 기획비서관, 23. 경제금융비서관)이며, 그 다음으로는 소속 부처인 기획재정부(3명: 부록 1의 2. 장관 겸 경제부총리, 9. 제1차관, 10. 제2차관)임 <도표13>.

<도표13> 행정부 내 고위공직/기관장급 모피아 분포도  
 - 윤석열 정부 내 기획재정부 출신자 (부록1의 1~13, 22, 23) -



상관관계=0.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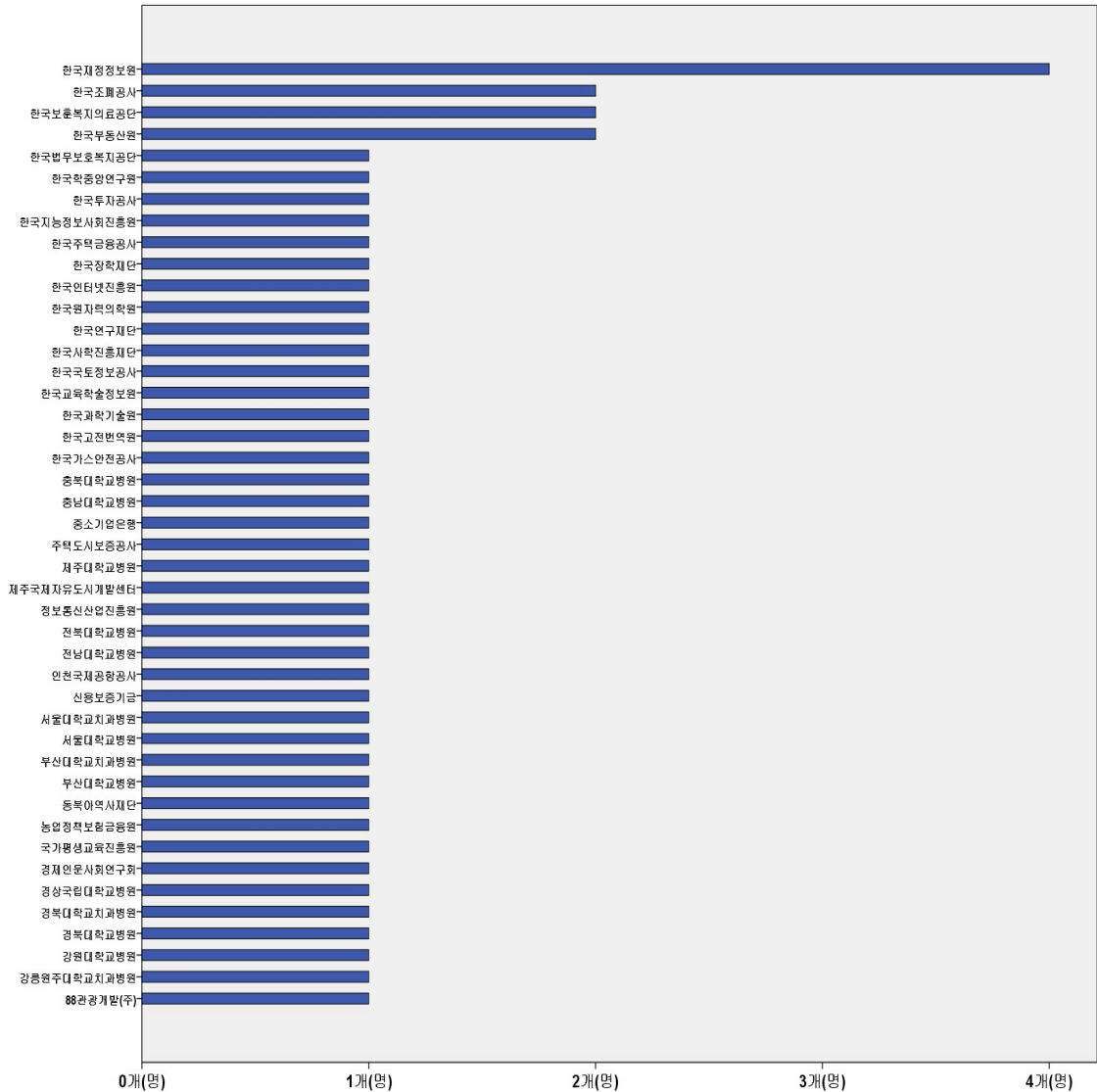
- (공공기관) 공석(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공공기관 내 모피아는 50/410개(12%)로서, 행정부를 포함한 전체 기관 대비 12%(65/533개)와도 동일한 수준임. 관련 법 또는 정관에 의거하여 비상임이사직 겸직 (부록1의 10, 36, 37. 현직자)을 제외하면, **준시장형 공기업 내 모피아가 6/26명(23%)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함.** 직위 점유수 및 독점성이 가장 높았던 단일 기관으로는 업무 유관성이 가장 높은 산하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4명: 부록1의 15. 원장, 26. 상임이사, 31. 및 35. 비상임이사)**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직위를 독점하고 있음 <도표14>.





<도표14> 공공기관 내 기관장/이사직급 모피아 분포도

- 윤석열 정부부처 산하기관 내 기획재정부 출신자 -



<도표15>

상관관계 0.209\*\*\*

86%

59%

관피아 타부처 재취업

- 비기재부 출신 - 낙하산 인사

모피아 타부처 재취업

- 기재부 출신 - 낙하산 인사

- (낙하산인사) 전/현직 모피아 56/65개(명목 86%) 직위자 (29/38명, 실질 76%)가 타 기관 재취업에 해당함 (예: 부록1의 7.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8. 보건복지부 제1차관, 10, 35, 36, 37, 38. 겸직자 등). 타 부처 내 관련 예산재정이나 그 산하 공공기관 부채관리 등을 해당 부처의 정책기능과는 다른 목적으로 재취업 또는 겸직함 <도표15: 윤석열 정부 및 공공기관 내 모피아 낙하산 인사 - 비/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간 교차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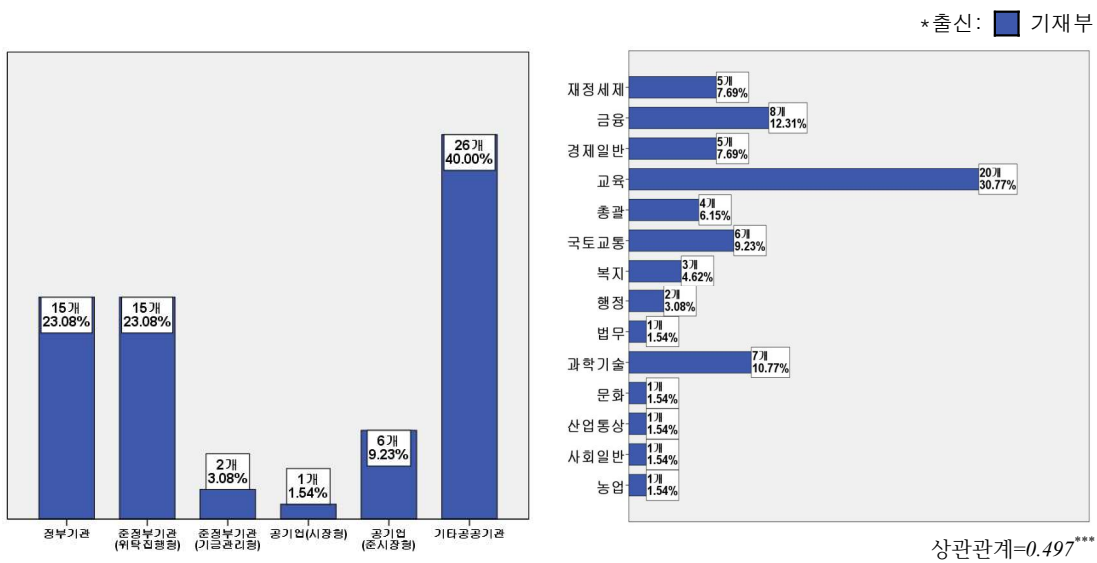


- 특히 모피아의 경우 타부처 낙하산 인사가 다수인 점, 한 명이 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직을 17개 겸직하는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정책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부적격 인사) 대부분의 경우 자기 전문성이나 업무 유관성을 가장한 재정준칙(소위 “예산완박”) 관치 목적으로 추정
- (전문성 우려) 모피아의 경우 타부처 낙하산 인사가 비교적 다수
- (정책기능 상실) 문어발식 겸직 등 전문성 불일치 사례를 감안하면 정상적인 직무수행 기대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직무독과점) 교육분야 낙하산 인사 등 겸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재정세제(5개), 금융(8개), 경제일반(5개) 순으로 직위에 높은 점유율과 출신여부에 종속성(0.497)을 보임 <도표16>. 물론, 현재 공석인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기획재정부 내 산하기관을 포함한 모피아의 직위 점유율은 100%(10/10개)로 확인됐으나, 비교적 그 사례가 적어서 종속관계를 신뢰할 수 없음.<sup>5)</sup>

<도표16> 기관형태별 고위공직/기관장급 모피아의 비중(좌) 분야별 업무 유관성에 따른 종속성 순서(우)



5) 집단 내 표본 P=0.05이므로 기각함. 다만, 최근 5개년 기획재정부 4급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율(96.8%, 30/31명)을 감안했을 때, 향후 공석을 포함하게 될 경우 신뢰도 R=99.918, P<0.002을 만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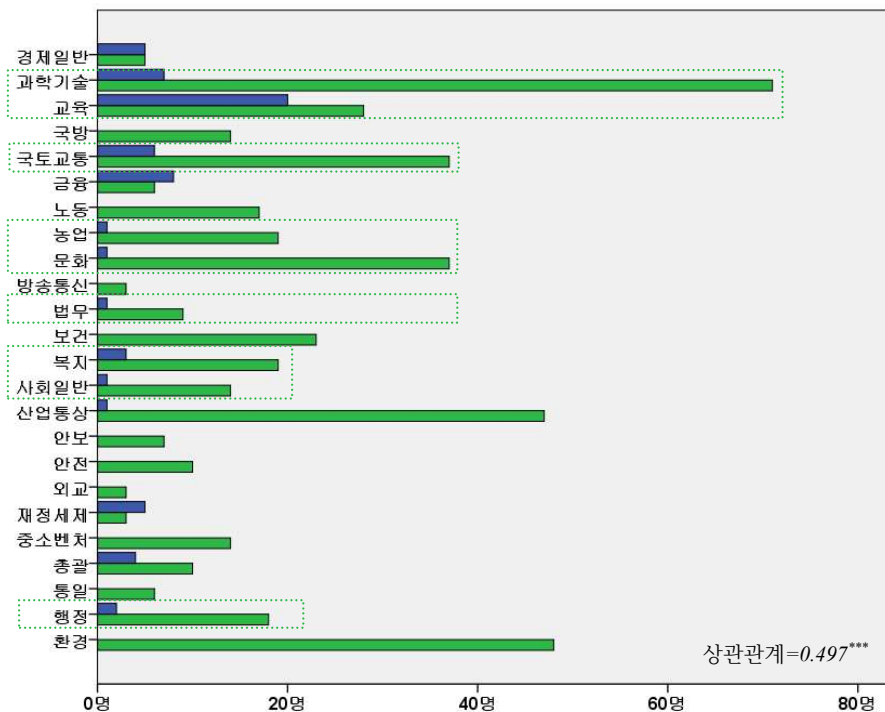


- (전문성 일치도) 고위공직 모피아의 경우 출신부처 등 유관기관 경제 분야 직무와의 관련성은 50% 수준으로 확인됨. 과학기술, 교육, 국토교통 등의 순으로 비교적 유관성이 낮고, 타 부처 관피아 세력들과 독과점 경쟁 관계에 있음 <도표17>.

<도표17> 모피아 직무 점유율과 관련성

- 분야별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 점유율 <도표16> 교차검정 결과 -

\*출신: ■ 기재부/ ■ 비기재부



- (전문성 일치) 재정세재, 금융, 경제일반 등의 순으로 비교적 높은 유관성(종속성)과 독과점을 보임
- (전문성 불일치) 과학기술, 교육, 국토교통 등의 순으로 비교적 유관성이 낮고, 타 부처 관피아 세력들과 독과점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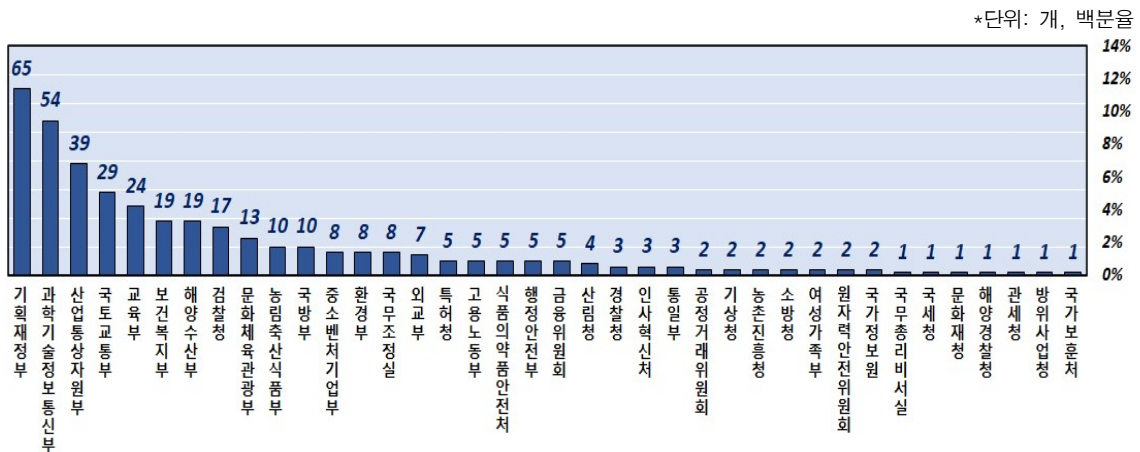
∴ (실질) 교육분야 등 당연이사직을 제외할 경우 모피아의 경우 68% 일치하고 있어, 최소 절반 이상은 “정량적 일치”를 추정할 수 있음. 비교적, 관피아 전체 집단의 직무 관련성이 40% 일치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모피아의 일치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

### □ 관피아 세력도

- (전체 점유율)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직위(389개)를 출신 주무 부처를 기준으로 분류(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결과, 그 점유수 및 점유율은 1위 기획재정부(모피아, 65/389개, 12.2%), 2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피아, 54/389개, 10.1%), 3위 산업통상자원부(산피아, 39/389개, 7.3%) 순으로 절대다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도표18, 19>.

<도표18> 고위공직/기관장급 출신부처별 관피아 세력도 (2022년)

- 행정부 내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직위 점유수 및 점유율 -





<도표19> 고위공직/기관장급 출신부처별 관피아 세력순 (2022년)

- 행정부 내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직위 점유수 및 점유율 -

\*단위: 개(명), 백분율(전체 직위수 533개 대비), 괄호(겹직을 제외한 전체 인원수 504명 대비)

서열 (실질, 인구순)	관피아 출신부처	고위공직 점유수(개) (실질, 명)	공위공직 점유율(%) (실질, %)
1위 (3위)	기획재정부	65 (38)	12.2 (7.5)
2위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	10.1 (10.7)
3위 (2위)	산업통상자원부	39	7.3 (7.7)
4위	국토교통부	29	5.4 (5.8)
5위	교육부	24	4.5 (4.8)
공동 6위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19	3.6 (3.8)
8위	검찰청	17	3.2 (3.4)
9위	문화체육관광부	13	2.4 (2.6)
공동 10위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10	1.9 (2.0)
공동 12위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8	1.5 (1.6)
3/4분위	외교부 등 나머지 24개 부처	66	12.4 (13.1)
<b>합계</b>		<b>389</b> (362)	<b>73.0</b> (71.8)

- (예산지원) 윤석열 정부가 293개 관피아 기관장들에게 지원할 2022년도 예산규모는 총예산(710조6,076억원)의 86%인 608조4,153억원, 모피아 기관장에게는 총예산의 4.7%에 해당하는 33조6,560억원을 지원함 <도표20>.

- (규모면) 주무 부처 내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관피아에게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부처는 1위 보건복지부(142조6,720억원, 20%), 2위 교육부(91조3,916억원, 13%), 3위 국토교통부(71조5,579억원, 10%) 순으로 집계됨.
- (기관당) 동기간 1개 기관당 전체평균(1조7천억원)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주무 부처는 1위 행정안전부(평균 23조5,584억원, 전체평균 대비 14배), 2위 인사혁신처(평균 13조6,276억원, 8배), 3위 국방부(평균 9조9,525억원, 6배) 순으로 집계됨.

<도표20> 기관장급 관피아 부처별 윤석열 정부 예산지원 규모(2022년)

- 행정부 내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총예산(좌) 및 기관당 평균예산(우) -

\*단위: 백만원, %, 배수

총규모 순	주무 부처 (산하 공공기관 포함)	관피아별 예산지원 (백만원)	비중 (%)	기관당 규모 순	주무 부처 (산하 공공기관 포함)	관피아별 평균예산 (백만원/기관수)	배수 (배)
1위	보건복지부	142,671,997	20.1	1위	행정안전부	23,558,426	13.9
2위	교육부	91,391,619	12.9	2위	인사혁신처	13,627,637	8.0
3위	국토교통부	71,557,922	10.1	3위	국방부	9,952,515	5.9
4위	행정안전부	70,675,278	9.9	4위	보건복지부	7,926,222	4.7
5위	국방부	39,810,060	5.6	5위	기획재정부	7,423,452	4.4
6위	기획재정부	33,656,024	4.7	6위	경찰청	6,212,911	3.7
7위	인사혁신처	27,255,273	3.8	7위	방위사업청	5,840,716	3.4
8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532,475	3.5	8위	교육부	4,354,763	2.6
9위	농림축산식품부	19,592,693	2.8	9위	국토교통부	2,862,317	1.7
10위	방위사업청	17,522,147	2.5	10위	농림축산식품부	2,449,087	1.4
11위	산업통상자원부	13,152,492	1.9	11위	국가보훈처	2,066,799	1.2
12위	경찰청	12,425,822	1.7	12위	국세청	1,933,000	1.1
3/4 분위	해양수산부 등 나머지 총예산	44,171,585	6.2	3/4 분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나머지 평균예산	459,718	0.3
<b>관피아 지원 총예산</b>		<b>608,415,397</b>	<b>85.6</b>	<b>전체 평균예산 (민간출신 포함)</b>		<b>1,700,018</b>	<b>1.0</b>

\*주석: 전체 533개 직위 중 기관장급(유효값, 미공시 결측값 제외) 293개 직위 대상. 공시값 '0원' 의 경우 유효값으로 계산.

- (보수지급) 정부가 동기간 관피아 377명에게 지급할 보수는 총보수(694.2억원)의 73%인 504.5억원(총예산의 0.01% 규모), **모피아에게는 총보수의 5.9%인 41억2,922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도표21>.
  - (규모면) 주무 부처 내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관피아에게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하는 부처는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79억3,077만원, 11.4%), **2위 산업통상자원부**(55억4,851만원, 8.0%), **3위 기획재정부**(41억2,922만원, 5.9%) 순으로 집계됨.
  - (직위당/1인당) 동기간 기관장 및 이사직을 포함한 직위당/1인당 평균 연봉(명목 1억3,532만원, 실질 1억4,342만원)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연봉이 책정된 관피아는 **1위 국무총리**(부록1의 1. 1억8,959만원, 명목 1.40배, 실질 1.32배), **2위 방위사업청**(평균 1억7,278만원, 명목 1.28배, 실질 1.20배), **3위 중소기업벤처부**(평균 1억6,705만원, 명목 1.23배, 실질 1.16배) 순으로 집계됨.

<도표21>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 부처별 보수지급 규모(2022년)  
 - 행정부 내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총보수(좌) 및 직위당/1인당 평균연봉(우) -

\*단위: 천원, %, 배수, 괄호(실질, 1인당)

총규모순	주무 부처 (산하 공공기관 포함)	총보수 (천원)	비중 (%)	직위당 규모순 (1인당)	주무 부처 (산하 공공기관 포함)	평균연봉 (천원)	배수 (배)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930,771	11.4	1위	국무총리	189,592	1.40 (1.32)
2위	산업통상자원부	5,548,507	8.0	2위	방위사업청	172,776	1.28 (1.20)
3위	기획재정부	4,129,222	5.9	3위	중소벤처기업부	167,054	1.23 (1.16)
4위	국토교통부	3,717,998	5.4	4위	금융위원회	166,921	1.23 (1.16)
5위	대통령실	3,288,200	4.7	5위	보건복지부	159,048	1.18 (1.11)
6위	해양수산부	2,858,371	4.1	6위	해양수산부	158,798	1.17 (1.11)
7위	교육부	2,624,657	3.8	7위	원자력안전위원회	158,398	1.17 (1.10)
8위	보건복지부	2,568,410	3.7	8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3,013	1.13 (1.07)
9위	국무조정실	2,387,643	3.4	9위	관세청	151,271	1.12 (1.05)
10위	문화체육관광부	1,310,110	1.9	10위	공정거래위원회	147,421	1.09 (1.03)
11위	농림축산식품부	1,203,852	1.7	11위	고용노동부	146,180	1.08 (1.02)
12위	중소벤처기업부	1,169,377	1.7	12위	산업통상자원부	146,023	1.08 (1.02)
3/4 분위	금융위원회 등 나머지 총보수	11,713,144	16.9	3/4 분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나머지 평균보수	130,082 (131,528)	0.96 (0.92)
	<b>관피아 총보수</b>	<b>50,450,263</b>	<b>72.7</b>		<b>1명당 평균연봉</b> (민간출신 포함)	<b>135,316</b> (143,423)	<b>1.0</b>

\*주석: 미공시 12개 제외 377개 직위 대상. 고정급을 제외한 1~3급상당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급 및 우수상여금(12%)으로 일괄 가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의 신규 채용시 최대연봉 기정하지 아니하고 개별 공직경력 호봉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추산.



- (정부기관 고정급) 관피아의 경우 고정급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이 많고 또한 그 이하의 계급의 경우에도 호봉을 초과하는 상한액 제한에 따라 공직 집단내/간 또는 민간 출신과의 보수의 차이나 상관관계는 없음.
  - ☞ (모피아) 다른 출신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급을 받는 차관급 이하 직위자 및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직 겸직자가 많고 반면 고액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들이 적어서 낮은 보수에서 강한 종속성(0.837)을 보임. 민간출신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은 연봉을 받음.
- (공공기관장 고액연봉) 준차관급 공공기관장들의 경우 다른 출신집단에 비해 고액연봉에 종속되는 명백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기타공공기관장들(주로 이공계 출신)의 경우 가장 강한 종속성(0.887)을 보임.
  - ☞ (초고액연봉자) 대통령의 보수(2억4,456만원) 보다 더 많은 연봉이 책정된 관피아는 7명으로 확인됨.<sup>6)</sup>

∴ 고위공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분야별 전문성 차이(유/무)나 전문성의 정도(경력기간)에 따른 상관관계나 보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sup>7)</sup>

6) 기초과학연구원장 ₩331,600,000;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296,575,000; 국립중앙의료원장 ₩266,174,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264,920,000; 국립암센터 원장 ₩256,708,00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252,800,000; (재)건설기술교육원장 ₩252,080,000

7) 「국가공무원법」보수지급 기준(산식)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대부분 고정급 또는 상한액(호봉초과)에 따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지침에 의해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아래 경력기간 참조).





### 3. 위험도 측정

위 내용을 종합, 고위직 관피아 회전문/낙하산 인사 변동에 따른 출신부처 내/외 이합집산도 및 균형위험도를 측정한 결과, 1위 기재부, 2위 대통령실, 3위 교육부 순으로 관피아 세력의 이합집산이 잦고, 민간과의 권력격차에 따른 불균형 역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 관피아 이합집산도

- (분산도) 출신기관별 관피아 세력이 퍼져있는 정도를 확인(출신기관별 일원분산 표준편차 측정)한 결과, 1위 기획재정부(38.89), 2위 대통령실(24.04), 3위 검찰청(12.02), 4위 교육부(10.60), 5위 국무조정실(7.07) 등 순으로 측정되었고, 출신여부가 분산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 즉, 해당 기관들은 타 부처 출신 또는 민간 출신들과의 인사교환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낙하산/회전문 인사 사례가 다수.


- (집중도) 출신기관별 관피아 세력의 균집도를 확인(신뢰구간 95%수준 비중편차<sup>8)</sup> 측정)한 결과, 공동 1위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0.000), 3위 문화체육관광부(0.017) 순으로 나타남. 그 외 기관들은 출신여부가 집중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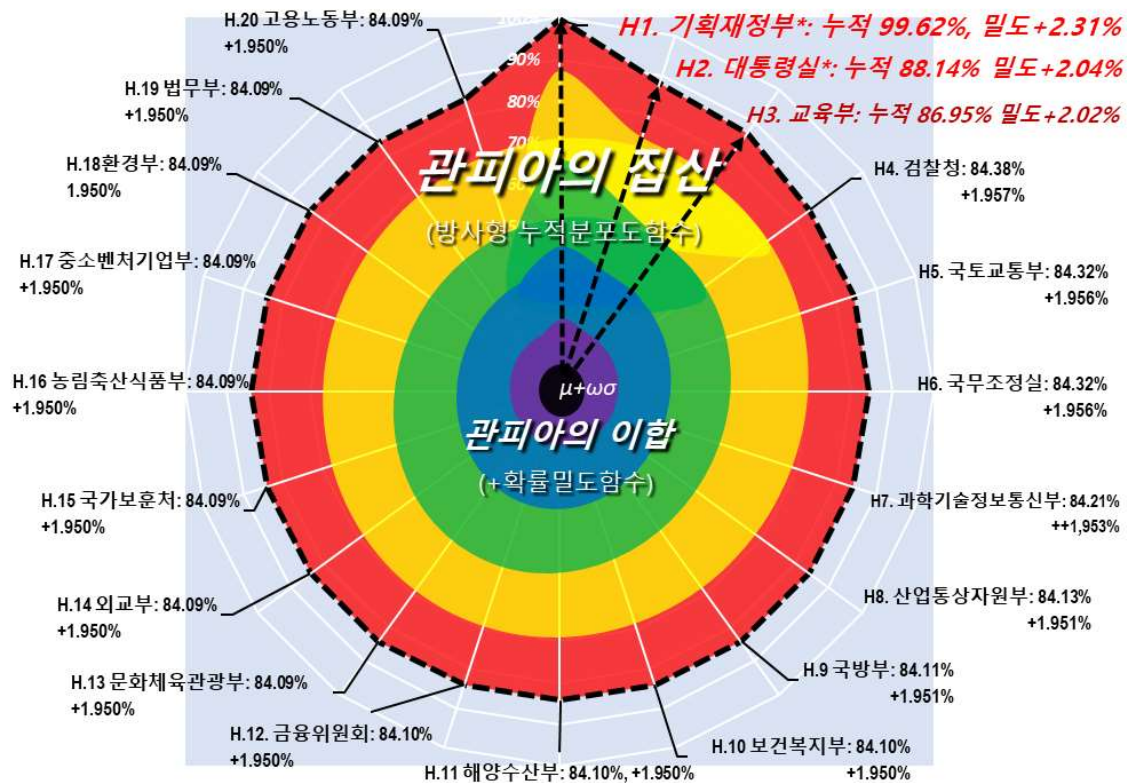
☞ 즉, 해당 부처들은 다른 부처와의 인사교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처 내 전/현직 고위공직 출신들끼리 돌아가면서 재임용하는 회전문 인사 관행을 일정수준 폐쇄적으로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

8) 관련 산식 부록2 참조

○ (이합집산도<sup>9)</sup>) 분산도 및 집중도에 따라 이합집산이 잦은 집단을 추산(관피아 비중 1/4분위내, 방사형 누적분포도함수 측정)한 결과, 1위 기획재정부 (99.62%), 2위 대통령실(88.14%), 3위 교육부(86.95%) 순으로 확인됨 <도표22>. 또한 신경망분석 결과, 해당 부처들은 출신여부가 군집과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중요 독립변수에 해당하며, 그 밖에도 나머지 17개 부처들이 출신여부에 따라 이합집산이 잦은 설명변수로서 분석됨 <도표23>.

<도표22> 고위직 관피아 회전문/낙하산 인사 변동에 따른 출신부처 내/외 이합집산도  
 - 윤석열 행정부 내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방사형 누적분포도함수 중요·설명변수 시계열순(H<sub>1</sub>~H<sub>20</su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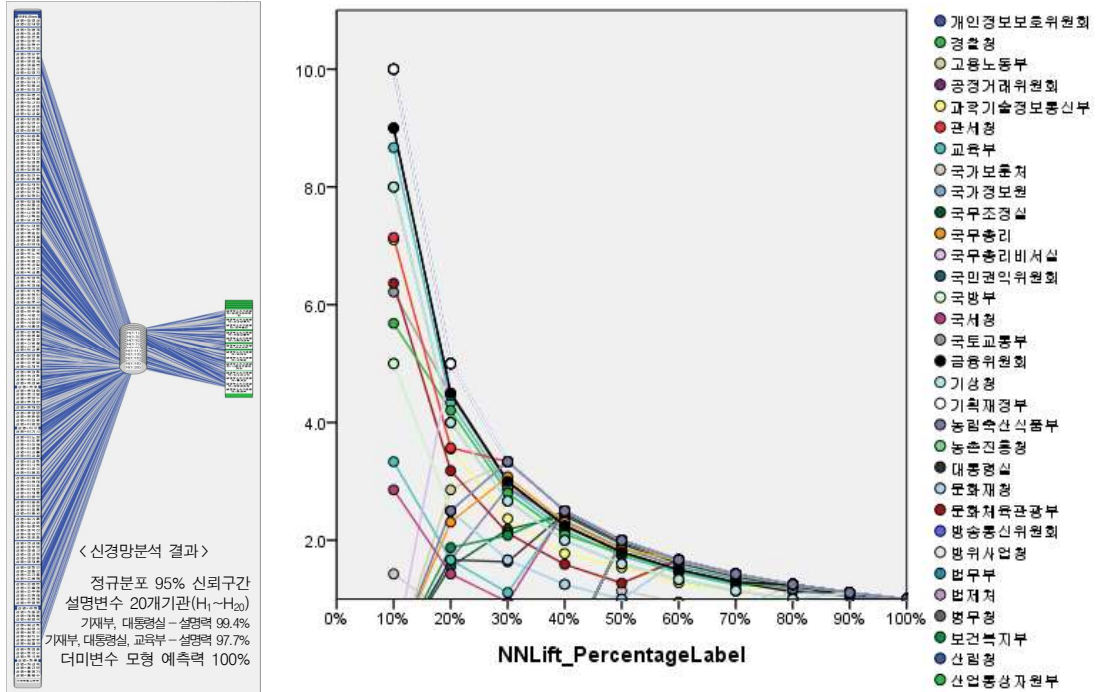
\*정규화척도 (CDF, 누적분포도): 관피아 누적성장률(%)  
 (PDF, 확률분포도): 관피아 성장률(%)  
 (DBCAN, 군집밀도): 이합  집산  
 95% 신뢰구간 설명변수=20개, 중요독립변수=H<sub>1</sub>~H<sub>3</sub>



\*주석: 1. 비선형 베타함수(베르누이 PDF 편미분, 가우스 CDF적분) 조합확률 설명력 99.4%\*\*\*, 분산분석 독립변수=2  
 2. 파이에공척도 로그선형 베타함수(블랙-숄츠 PDF 편미분, 가우스 CDF적분) 조합확률 설명력 97.7%\*, 신경망분석 (다변량 공변량분석) 중요독립변수=3, 설명변수=20, 더미변수에 대한 모형 예측력 100% (<도표23> 참조).  
 3. 신경망분석 알고리즘 산식: 부록2 참조

9) 이합집산(離合集散)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한다는 뜻으로서 이합집산도는 전/후 인사변동에 확률밀도함수(흩어진 관피아가 출신부처 내 모여들 확률비중에 따른 성장률) 및 누적분포도함수(요인이 출신부처 외부로 흩어질 확률비중에 따른 누적성장률)로서 그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통계모형(부록2 참조)

<도표23> 신경망분석에 따른 이합집산도 방사형 누적분포도함수



\*주석: F-분포, 정규화된 가우스분포 및 로그분포 누적분포도함수는 부록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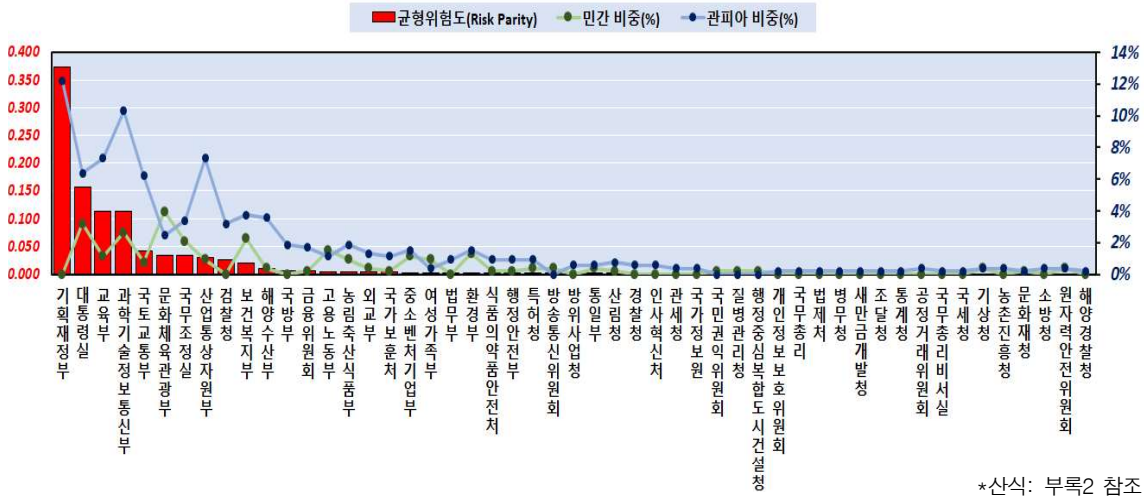
(신경망분석 결과) 신뢰도 97.7%수준에서 기재부 등 상위 3개 기관들은 출신여부가 회전문/낙하산 인사(내정)를 결정하는 중요변수, 그 밖에도 17개 출신 기관들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균형위험도) 종속성 등 위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여 출신부처별(산하 공공 기관 포함) 종속성에 따라 관피아와 민간 간의 불균형 정도(균형위험도, Risk Parity)를 측정한 결과, 1위 기획재정부(0.373), 2위 대통령실(0.157), 3위 교육부(0.113),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0.112) 순으로 불균형과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도표24>.



<도표24> 윤석열 정부 내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와 민간 간의 균형위험도  
- 행정부 내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 -

\*척도(균형위험도): 기관전체 총위험도=1



\*산식: 부록2 참조

- (관피아 ≫ 민간)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피아 점유율이 매우 높고, 민간과의 비중 격차(불균형)가 크고, 공직 출신여부에 종속성이 강하고, 낙하산/회전문 인사에 따른 이합집산이 잦은 기관임. 다만, 국토교통부(0.042), 산업자원통신부(0.031), 검찰청(0.026), 해양수산부(0.009), 국방부(0.007) 등은 이합집산에 따른 변동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저평가됨.
  - (관피아 < 민간) 문화체육관광부(0.035) 등의 경우 민간경력자가 더 많고, 관피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에 해당함. 물론, 민간에 편중된 경우 지배구조 측면에서 균형위험도를 저평가하기 어려움.
  - (관피아 ≈ 민간) 국무조정실(0.033), 보건복지부(0.020), 농림축산식품부(0.005), 중소벤처기업부(0.003), 환경부(0.002) 등의 경우 관피아 점유율이 낮지는 않지만, 1/4분위 범위 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민간과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서 변동성 위험을 분산시킴에 따라 위험도가 저평가됨. 관피아 중에서는 지배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편에 해당.
- ※ 그 밖의 부처들의 경우 사례 수가 적어서 위험도를 추정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움.

**모피아 낙하산 인사에 따라 향후 타부처 예산 약 231.4조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sup>10)</sup>**

10) 추정 산식: 타부처 균형위험예산 = (균형위험도 × 총예산) - 기획재정부 지원예산

#### 4. 프로필 분석 다중응답

##### □ 정부, 정치, 민간 유관경력

<도표25> 회전문 인사  
-윤석열 정부 및 공공기관 내-



○ (회전문 인사)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 10명 중 4명꼴 (159/389개), 모피아 38명 중 25명(66%)이 퇴직 후 공직에 재취업한 사례에 해당함 <도표25>. 공직집단별 정부, 정치, 민간 유관경력 유무를 프로필 분석한 결과, 관피아의 40%(155/389개)가 퇴직 후 민간기업 내 감사 또는 사회이사 등 민간기업을 거쳐서 공직에 재취업 (예: 부록1의 1. 국무총리, 3. 비서실장, 6. 국무조정실장 등 모피아 25명)했고, 1%(4/389개)는 공직 퇴직 후 정치 경력 외 민간경력은 없었음. 관피아의 4%(14/389개)가 민간경력 및 정치경력(예: 국회의원, 지역정당 내 위원장, 선거경험 등)을 모두 갖고 있음 <도표26>.

<도표26> 고위공직자/기관장 중 출신자 집단별 정부, 정치, 민간 유관경력 유/무

단위: 유=1 / 무=0, 괄호(실질)

유관경력 유/무	기재부 출신자 (전체 65개, 38명)	응답 비율 (%)	비기재부 공직 출신자 (전체 324개)	응답 비율 (%)	민간 출신자 (전체 144개, 142명)	응답 비율 (%)
정부경력	65 (38)	100.00	324	100.00	23 (21)	15.97 (14.79)
정치경력	5	7.69 (13.16)	13	4.01	22	15.28 (15.49)
민간경력	23	35.38 (60.52)	132	40.74	140 (138)	97.22 (97.18)

○ (경력기간) 출신자들간 경력기간에 따른 전문성의 정도와 상관관계는 추정 되지 않고, 경력별 유/무에 따른 전문성의 차이가 고위공직/기관장직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를 결정할만한 기준 역시 아닌 것으로 추정됨.

**모피아 경력기간**  
(정부경력) 평균 377개월 (최소 243개월 ~ 최대 494개월, 20호봉~41호봉)  
(정치경력) 5명 합계 174개월<sup>11)</sup>  
(민간경력) 평균 33개월 (최소 2개월 ~ 144개월)

## 5. 문헌조사

□ (재취업 승인율) 최근 5개년 ‘4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평균 승인률은 89.3%로서, 4급 미만 취업심사자들 보다 취업가능·승인율이 상승함 <도표27>.

○ (모피아) 동기간 ‘4급 이상’ 민간기업 재취업 승인율이 96.8%로 가장 높았음.

※ 아래 최근 5개년 내 4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자들 중 본 조사 대상자들 일부 (부록 1의 6. 경제수석, 24.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등)가 포함됨.

<도표27> 8개 부처별 ‘4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2016~2021.8월)

단위: 명, 백분율

퇴직 전 출신 소속기관	4급 이상 대상자 (A)	취업 가능 (a)	취업 제한 (b)	취업 승인 (c)	취업 불승인 (d)	승인율 (%)
기획재정부	31	18	1	12	0	96.8
산업통상자원부	94	63	6	24	1	92.6
국토교통부	86	49	9	21	7	81.4
중소벤처기업부	14	7	2	5	0	85.7
공정거래위원회	27	23	2	1	1	88.9
금융위원회	22	10	0	10	2	90.9
국세청	22	18	3	1	0	86.4
금융감독원	111	86	3	19	3	94.6
<b>8개부처 합계</b>	<b>411</b>	<b>274</b>	<b>26</b>	<b>93</b>	<b>14</b>	<b>89.3</b>

출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주석: 1) 4급 이상: 퇴직직급이 1~4급, 직원 1~4급, 가급, 고위공무원, 임원, 전문임기제, 정무직인 자

2)  $A=a+b+c+d$ , 승인율= $(a+c)/A*100$

11) 부록1의 2. 전 국회의원 72개월, 16. 전 지역정당위원장 61개월, 17. 현 춘천시장 당선인 29개월, 22. 부산시장보궐선거 낙선자 6개월, 39. 전 지역정당위원장 6개월



## 논의사항

- (시사점) 윤석열 정부 내 공공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별 세력도와 권력관계를 규명하여 **모피아의 비정상적인 권력 독과점의 심각성**이 정량적으로 들어남.
- (비대한 경제권력) ▲모피아 고위공직 점유율 서열 1위(12%, 65/533개), 윤석열 정부 2022년도 ▲모피아 예산지원 33조6,560억원(총예산의 4.7%, 6위) 및 ▲모피아 보수지급 41억2,922만원(총보수의 5.9%, 3위) ➡ **타 기관 예산재정 및 부채관리 기능을 감안하면 그 영향력은 231.4조원으로 추산**
- (비정상 권력분포) 모피아 세력 내/외에서 ▲상명하복관계 권력격차, ▲잡은 이합집산 1위(회전문/낙하산 인사 누적분포 99.62%), ▲전체 균형위험도 1위(총 위험기여율 37.3%) ➡ **정부조직개편 및 인사혁신단행 필요성 함의**
- (낙하산/회전문 인사) 모피아 ▲38명 중 25명(66%)이 회전문 인사, ▲65개 직위 중 56개(86%)가 낙하산 인사, 직위 절반은 전문성 불일치, 부적격 등 정책기능 상실과 이해상충 우려
- (한계점) 정성평가와 함께 사회적 신뢰도 함께 검증할 필요.
- (이해상충 논란) 특정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전/현직 모피아 등에 대한 평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론스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개입 등 모피아(예: 부록1의 1,2,4,6 등) 외에도 적지 않은 수의 관피아들이 특정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
- (전문성 검증) 낙하산/회전문 인사들의 전문성, 필요성, 대체가능성에 대한 평가
  - 과거 엘리트주의에 기반 모피아의 경우 재정세제, 금융, 경제일반 분야 독점
  - ➡ 영미권 회전문 인사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 공직자를 재임용하더라도



‘엽관제(Spoils System)’와 같은 철저한 실적주의에 기반한 재임용에 한해 재취업 허용

- ☞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등의 경우 민간 출신자들이 더 많고, 다른 부처들의 경우도 민간과 균형을 유지
- ☞ 민간직 출신자 쿼터제를 통한 고위공직 및 기관장직위 의무 개방 제도화 고려

○ **(모피아 권력축소)** 정부조직 개편 및 인사혁신 단행 필요성 및 방법론 논의

- ☞ 예산의 집행과 정책기능 분리 등 필요

□ **(예측)**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마무리되면 향후 관피아는 총 400개 직위 373명, 모피아는 66개 직위 39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문헌

※ 판단의 근거가 되는 프로필/데이터 수집 방법은 7면과 같음.

박용석. (2022). *기획재정부 재정운력전략 진단*. 민주노동연구원.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2022).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등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공동성명. URL: <http://ccej.or.kr/76812>

배진교,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2022).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국익 훼손과 이해충돌 소지 심각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URL: <http://ccej.or.kr/77451>

[단독] 한덕수, 론스타 ISD 관련 서면 의견 제출했었다... “국익 대변했는지 밝혀야.” *한국일보* 2022.4.22. 기사. UR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2212370004151>

“공공기관 지난 1년동안 캠퍼더 인사 더 심해져.” *매일경제* 2019.10.17. 기사. URL: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78551/>

### 문헌조사 <도표23>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관피아 실태 보고서1-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URL: <http://ccej.or.kr/76326>

### 부록 1. 윤석열 정부 기재재정부 출신 관피아 명단

추경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법안 발의한다. *이데일리*. 2022.7.4. 기사. UR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66326622422008>

추경호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재정준칙 제정" 법안 발의. *조선일보*. 2020.6.7. 기사. UR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7/2020060700671.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7/2020060700671.html)

[레이더P] 통합당 기재부 출신 '경제통 트리오'... "3차추경 졸속심사 헌정사 뼈아픈 오점." *매일경제* 2020.7.3. 기사. URL: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682571/>

민주, 론스타 의혹 파상공세, 국힘은 정책질의...추경호 청문회(종합2보). *매일경제* 2022.5.2. 기사. URL: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5/390491/>

추경호 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추경호'... 아빠찬스 의혹. *동아일보* 2022.4.28. 기사. URL: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8/113125212/1>

[Who Is ?]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비즈니스포스트* 2022.5.24. 기사. URL: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1787](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1787)

조용만 문체2차관 ‘성추행 의혹’… 趙 “오해 풀어.” *동아일보* 2022.5.14. 기사. URL: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14/113391666/1>

[프로필] 관세청장 윤태식…국제금융 정통한 경제관료. *아주경제* 2022.5.14. 기사 URL:

<https://www.ajunews.com/view/20220514001152959>

윤태식. (2022). "솔선수범하며 발로 뛰는 청장이 되겠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 취임사]. *관세청 유튜브*. URL: <https://youtu.be/zM20B-0LGI0>

기재부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임명…60조 세수오차 문책성 인사. *중앙일보* 2022.1.27. 기사.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4246#home>

NIPA, 본부장·팀장 인사…3개 단과 AI반도체팀 신설. *지디넷코리아* 2022.5.31. 기사. URL: <https://zdnet.co.kr/view/?no=20220531103858>

박성훈 부시장, 국비 확보 ‘좋은 성과’. *부산일보* 2020.11.9. 기사. URL: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10919154910469>

경부선 지하화 K뉴딜 선정에 빛난 박성훈의 역할. *부산일보* 2020.10.15. 기사. URL: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01519262767166>

<이슈 앤 사람> 박성훈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파이낸셜뉴스* 2020.8.31. 기사. URL: <https://www.fnnews.com/news/202008311118149524>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국회연구소 홈페이지*. URL:

<http://log.gov3.org/profile.php?name=%EC%9E%84%EA%B8%B0%EA%B7%BC>




기타 위키피디아 및 나무위키 검색.




## 부록 2. 분석방법 및 사후검정

IBM. (2021). *IBM SPSS Statistics 문서*. URL: <https://www.ibm.com/docs/ko/spss-statistics>

Fischer Black and Myron Scholes. (1973). “The Pricing of Options and Corporate Liabil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um. 3: Pp. 637-654. doi: [10.1086/260062](https://doi.org/10.1086/260062). S2CID 154552078





부록 1.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출신 관피아 명단 (2022.6.13. 기준)





권력 순서	사진	성명	출생 연도	현재 소속/직급 관리예산 및 보수	취임일	주요 경력사항 (정부, 정치, 민간)	출신	정부 경력 (개월)	정치 경력 (개월)	민간 경력 (개월)	전문 분야	학력사항 전체	주요 활동 및 논란
1		한덕수	1949	<b>국무총리</b> -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기재부총리 -  <b>예산</b> ₩ 655,876,000,000 원 <b>연봉</b> ₩ 189,592,000 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 예산	2022년 5월	2022.5.~현재 제48대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 2021.3.~2022.4. 에스오일 사외이사 2017.12.~20224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2012.2.~2015.2. 제28대 한국무역협회장  2009.3.~2012.2. 제23대 주미국대사 (이명박 정부) 2007.4.~2008.2. 제38대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 2006.8.~ 한·미 FTA제결지원위원회 위원장 2005.3.~2006.7. 제13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부장관 2002.11.~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2001.11.~2002.7.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김대중 정부) 1997.3.~1998.3. 제4대 통상산업부차관 (김영삼 정부) 1993.3.~1994.5.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 1970.12. 관세청 가격조사담당 관사무원	행시 8	364	-	127	경제 · 산업 통상 (한미 FTA)	하버드대 경제학 석사·박사 (1984)  서울대 경제학 학사(67학번) (1971)  경기고졸업(63회) (1967)	1. 김앤장 고문 시절 론스타 사태 연루, 고액수임 이해충돌 논란 (변호사법 위반) 2. S-Oil 사외이사 고액보수 논란 3. 한국무역협회장 시절 특급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김영란법 위반 논란) 및 일왕 생일파티 참석 논란 4. 미국대사 시절 ▲대미 에너지 업체비 예산으로 골프장 연회비 등 지출, ▲부인 전사회 대사관 후원, ▲부인 그림 고가 판매 논란, ▲주미 대사관저 부부 동창회 관저 사적이용 특혜시비; 5. 금산법 완화 및 저축은행 사태 책임 논란 6. 한미 FTA 추진, 쌀개방 논란 7. 한·중 마늘 협상 파문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시절 8. 엑스모빌 및 AT&T 자택 임대 이해충돌 논란 9. 처가 시세 대비 2배 땅 매각 논란 10. 이라크 파병 및 행정수도 이전 업무 지연
2		추경호	1960	<b>기획재정부 장관 겸 기재부총리</b> -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제1차관 -  <b>예산</b> ₩ 29,624,930,000,000 원 <b>연봉</b> ₩ 143,348,000 원	2022년 5월	2022.5~현재 기획재정부 장관 겸 기재부총리 2022.3~202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  2020.9~2022.4. 제21대 국회의원 (대구달성군/국민의힘) 2016.5~2020.5. 제20대국회의원 (대구달성군/자유한국당)  2014.7~2016.1 국무조정실장 (박근혜 정부) 2013.3~2014.7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1.9~2013.3 제4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0.5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이명박 정부) 비상경제상황실장 2003.3~2006.8 재정경제부 금융정책부 은행제도과장 (김대중 정부, 금융정책과장(부이사관) 1998.3.~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김영삼 정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1987.9~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물가정책국 대외경제조정실사무관 1983.3. 총무처.환경정사무관	행시 25	394	72	-	경제 · 금융	오리건 경제학 석사 (1993)  고려대 경영학 학사 (1983)  계성고등학교(66회) (1979)	1. 재정부 은행제도과장 시절 론스타 게이트 승인 논란 2. 딸 취업 관련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특혜 의혹 및 관련기사 삭제 외압 논란 3.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탄핵 결의 사건 4. 재벌기업 포이즌필 복수의결권 대표발의 5. 정치자금 월세 및 관리비 납부 논란 6.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대표법안: 규제프리 3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3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		김대기	1956	<b>대통령실 비서실장</b> -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  <b>예산</b> ₩ 47,785,000,000 원 <b>연봉</b> ₩ 139,417,000 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인보실 총 예산의 50%	2022년 5월	2022.5~현재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2020.7~2022.4.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사외이사 2019.3~2022.4. 두산중공업 사외이사 2015.3~2018.3.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 2015.3~2018.3.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 2013.3~2022.4. 한화생명고문  2012.8~2013.2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명박 정부) 2011.2~2013.2.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2009.4~2010.8. 제36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008.3~2009.4. 제11대통계청청장 2007.5~2008.3.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2006.6~2007.5.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노무현 정부) 1978. ~2005.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 등	행시 22	419	-	85	예산 재정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학사·석사 (1978)  경기고등학교(71회)	사외이사 경력 이해상충 논란 - SK이노베이션 - 한화생명 - 맥쿼리 - 두산인프라코어





4		<b>김주현</b> (후보자)	1958	<b>금융위원회 위원장</b> - 박근혜 정부 예금보험공사 사장 -	(미정)	<b>예산</b> ₩ 800,181,000,000 원 <b>연봉</b> ₩ 139,417,000 원	2019.6~현재 제12대 여신금융협회 회장 2016.1~ 우리금융경영연구소대표이사 2012.5~2015.5. 예금보험공사사장 (박근혜 정부) 2009.12. 금융위원회의 사무처처장 2009.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2008.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007.3.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등 1983.~ 재무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국민생활국 과장 등	<b>행시</b> 25	398	-	76	<b>금융 산업 (은행, 여신)</b>	워싱턴대 MBA 서울대 경영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학사 중앙고등학교	1. 현 여신금융협회장으로서 정부와 카드업계, 캐피탈업계 간의 핀테크 신용/대안대출 관련 대관업무 수행 중. 2. 예금보험공사 사장 시절 ▲저축은행사태 예보 채권회수 부실, ▲BIS부실 저축은행 예보기금 부실지연, ▲예보기금 관피아(공공기금) 부실지연 및 채권회수 부실, ▲예보 산하 서울보증보험 관리부실 등. ▲박근혜 정부 예술계 인사 채권-채무관리 논란.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3. 론스타 개입 실무진 (추경호 금융위 과장시절)
5		<b>방문규</b>	1962	<b>국무조정실 실장</b> - 문재인 정부 수출입은행장. 이명박 정부 기재부 제2차관. 복지부 차관 -	2022년 6월	<b>예산</b> (₩ 327,938,000,000 원) <b>연봉</b> ₩ 135,398,000 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 예산의 50%	2022.6.~현재 제7대 국무조정실장 2019.11.~2021.10. 제21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문재인 정부) 2019.6.~2022.6. 계열예술대학교이사(개방) 2018.12.~2019.10. 농협금융지주사외이사 2017.~2019.10. 고려대학교융합연구원석좌교수 2015.10.~2017.6. 보건복지부 차관 (박근혜 정부) 2014.7.~2015.10.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2009.4~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등 2006.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노무현 정부) 기획재정부 재정부/기획실 균형발전정책 총괄과장 등 1997. 재무부 국고국회계총괄과 서기관 등 1985. 국세청(사무관)	<b>행시</b> 28	412	-	27	<b>국가 균형 발전</b>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2009)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1995) 서울대 영어영문학 학사 (1985) 수성고등학교 (1981)	엘리트 공직자 출신 - 서울대-하버드 라인
6		<b>최상목</b>	1963	<b>대통령실 경제수석</b> -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금융경제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 -	2022년 5월	<b>예산</b> - 원 <b>연봉</b> ₩ 135,398,000 원	2022.5~현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2022.3~2022.5.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1분과간사 2020.6~2022.5. 제26대 농업대학교 총장 2020.3~2022.5 신한금융투자사외이사 2019.3.~2022.5 일동홀딩스사외이사 2019.2.~2020.5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8.9~2019.8 울산대학교사회과학부초빙교수 2017.8~2018.8 필리핀아시아태평양대학교객원교수 2016.1~2017.5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4.9~2016.1 대통령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박근혜 정부) 2013.10~2014.8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관리관) 등 2010.1~2011.3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08.3.~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2007.1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실무위원 2007.7~2008.2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등 2003.3.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비서관 1997.3.재정경제원산업경제과서기관 1986.~ 총무처 수습행정관	<b>행시</b> 29	374	-	57	<b>거시 경제 · 금융</b>	코넬대 경제학 박사 (1996) 서울대 법학 학사 (1986) 오산고등학교 (1982)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미르재단 출연 개입 및 위증 논란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의혹 3. 다주택자 양도세 초과세율 배제 4.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IB경영업무 허용) 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6.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 D노믹스 발간
7		<b>조용만</b>	1962 (음력 1961)	<b>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b> - 문재인 정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조폐공사 사장 -	2022년 5월	<b>예산</b> (₩ 7,396,824,000,000 원) <b>연봉</b> ₩ 135,398,000 원	2022.5~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018.1~2021.2 제23대 한국조폐공사 사장 (문재인 정부) 2017.2~2017.9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실장 등 2013.3~2014.1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단장 2008.3.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장 등 1987.~ 기획예산처 입부	<b>행시</b> 30	407	-	13	<b>통상 · 재정 예산 (문화)</b>	미주리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서울대 무역학 학사 순천고등학교	문체부 제2차관 직은 기재부 단골 자리 - 문화 예산 관리 목적








8		조규홍	1967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2년 5월	2022.5~현재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2.3.~202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 분과전문위원 2021.9~2022.3.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초빙교수 2018.10~2021.10.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2014.9.~2018.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차관보) 등(박근혜 정부) 2013.3~2014.9.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1.6~2013.3. 기획재정부 장관정책 보좌관 2010.1~2011.6. 대통령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노무현 정부) 2008.3.~2001.1.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등 2007.3~2008.3.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재정과장 등 1988. 기획예산처 입부	행시	391	-	6	코로나 19 대응 · 재정 예산 (복지) · 국민 연금	콜로라도대 경제학 석·박사  서울대 경제학 학사  중앙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복지부 차관 직은 기재부 단골 자리  - 사회복지 예산 관리 목적
9		방기선	1965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2년 5월	2022.5.~현재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1.2.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 2019.1.~2021.1. 기획재정부 차관보.관리관 2017.9. 기획재정부 정책조정 국장 등 2014.11.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박근혜 정부) 2011.1. 기획재정부 예산실복지예산과장 등 2008.3.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명박정부) 2007.7. 기획예산처 정책기획 팀장 등 1993.5. 경제기획원 이경식 장관 비서관	행시	348	-	-	코로나 19 대응 · 재정 예산 · 혁신 성장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석·박사 (1996, 1998)  서울대 경제학(무역학) 학사 (1988)  한성고등학교졸업 (1984)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해결, ▲200조원 금융지원 대책 실무 총괄, ▲한일 수출규제 소부장 안정 대책 수립 등 성과
10		최상대	1965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겸 6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2022년 5월	2022.5~현재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겸 비상임이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산하) - 한국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 서울대학교 병원 및 치과병원, 한국학중앙연구원(교육부 산하) 2021.4.~2022.5.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관리관 등 2016.11. 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장관 비서실장 2008.3.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 재정경제비서관실 행정관 2009.8.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 2004.6.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 서기관 등 1997.3.~ 재정경제원 예산실 예산총괄과 사무관 1992.11.~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국 경제교육조사과 사무관 1992.5. 육군 석사장교 소위 전역	행시	374	-	-	재정 예산 (추경, 정보화) · 국가 부채	메릴랜드대 경제학 석사 (2002) 서울대 행정학 석사 (1991) 연세대 경제학 학사 (1988) 서울고등학교 (1984)	취임 후 예정사항  -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경 편성 - 재전 건전성 재정준칙 도입
11		이종욱	1965	조달청장	2022년 5월	2022.5~현재 조달청 청장 2021.2~2022.5.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2020.11. 국민경제사문화의 지원단장 2019.8.~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등 1992. 제35회 행정고시	행시	362	-	-	국고 · 예산 편성	미시간주립대 금융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학사 진해고등학교	특이사항 없음
12		한훈	1968	통계청장	2022년 5월	2022.5~현재 통계청 청장 2021.5~2022.5. 기획재정부 차관보 2020.1~2021.5. 기획재정부 경제예산 심의관 등 2017.6~2018.2.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2016.9~2017.6.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2013.8.~2016.8. 주일본대사관 재정경제관 2012.2.~. 기획재정부 전략기획과장 등 2007.8.~2010.3. 세계은행 파견 1991. 제35회 행정고시	행시	362	-	-	재정 예산 · 일자리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2003) 서울대 행정학 석사 (1999) 서울대 경영학 학사 (1991) 정읍 호남고등학교 (1987)	특이사항 없음

13		윤태식	1969	관세청장	2022년 5월	2022.5~현재 관세청 청장 2022.1~2022.5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0.10~2022.1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2020.1~2020.10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 2018.7~2019.8. 기획재정부 대변인 2012.8~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과장 등 ... 2005.10~. OECD 사무국 파견 2003.8.~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외화자금과 서기관 등 ... 1994. 재정경제원 세제실 사무관	행시 36	338	-	-	국제 금융 (외환, 기금, 개발)	일리노이주립대 경영학 석사  서울대 경영학 학사(87학번) (1991)  서울 영등고등학교 (1987)	문책성 인사  - 최근 관세청이 약 60조 이상의 세수 오차를 낸 것에 대해 문책성 인사로 기재부 출신을 내정됨
14		반장식	1956	한국조폐공사 사장 (기획재정부 산하)	2021년 2월	2021.2~현재 제24대 한국조폐공사 사장  2018.7~2021.1.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17.7~2018.6. 대통령실 일자리수석 (문재인 정부)  2008.7~2017.6. 서강대학교 서강미래기술원 교수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서강대학교 서강미래기술원 원장  2006.8.~2008. 기획예산처 차관 등 2005.4~2006.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단장 200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전문위원 1998.~2002. 기획예산처부 이사관 등 1995.~1996. 재정경제원 기술정보 과장 등 1978.~1994. 경제기획원 예산총괄과 등 사무관 1977. 제21회 행정고시 1975. 외환은행	행시 21	424	-	138	행정 · 예산 재정	고려대 행정학 박사 (2003)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1995) 서울대 행정학 석사 (1986)  국제대 법학 학사 (1978)  덕수상업고 (1973)	특이사항 없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 추위 추천 > 운영위 심의의결 > 기재부장관 제청 > 대 통령 임명
15		박용주	1961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기획재정부 산하)	2021년 10월	2021.10~현재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2020.5~2021.10. 한국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 2017.2~2020.5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장 2004.7~2017.2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등 2001.2~2004.6. 기획예산처 공기업 정책과장 등 ... 1980. 제24회행정고시	행시 24	494	-	-	예산 재정 (정보화)	쾰른대 경제학 박사 (1995)  서강대 경제학 석사 (1986)  서강대 경제학 학사 (1984)	특이사항 없음  *한국재정정보원 정관 제6조에 따라, 임추위 추천 > 기재 부 장관 임명
16		임해종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020년 9월	2020.9~현재 제17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2014.11~2019.12.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증평군진천군음성 군지역위원장. 증평진천괴산음성지역위원장 등  2011.4~2014.4. KDB산업은행 감사  2009.2~2011.4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등 2007.1~2009.2. 국방부 계획예산관 2005.4~2007.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장 2003.4~2005.4 기획예산처 예산법무담당관 등 ... 1980.12.행정고시제24회합격	행시 24	397	61	36	지역 경제 · 예산 재정	서섹스대 국제경영학 박사(2015)  가천대 회계세무학 석사 (1992)  한양대 법학 학사 (1981)  청주고등학교 (1977)	특이사항 없음

17		<b>육동한</b> (춘천시장 당선인)	1959	<b>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b> (법무부 산하)  - 퇴직자 재취업,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위원장 -	2014년 9월	2022.6. 춘천시장 당선 202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2020.1. 더불어민주당입당 제21대 총선출마(경선낙선)  2019.6~2019.4~ 한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  2017.8~2020.1 제11대 강원연구원 원장 2017.3~2020.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2017.3~2017.8 제10대 강원연구원 원장  2016.6~2016.6~ G1강원 민방시청 자위원회위원장 2016.6~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 2015.10.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2014.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2014.8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2014.8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국장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차장 ... 1980. 제24회 행정고시	행시 24	466	29	71	지역  경제 (강원도)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한양대 경제학 학사  춘천고등학교	더불어민주당 정치경력  - 춘천시장 당선에 따라 해당 이사진 사임 예정 -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활동 - 강원지역 자치경력 다수
18		<b>윤종원</b> (교체 예정)	1960	<b>중소기업은행 은행장</b> (금융위원회 산하)  -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	2020년 1월	2020.1~현재 제26대 기업은행 은행장 (문재인 정부) 2018.6~2019.6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2015.10~2018.6. 주OECD대표부 대사 (박근혜 정부)  2012.11~2014.10. IMF 상임이사 2011.9.~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명박 정부) 2009.2.~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국장 2006.9~2008. IMF 선임자문관 2005.3.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2003.4. 대통령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노무현 정부) 2002.9. 재정경제부 재정정책국 산업경제과장 등 1997.11~2000. IMF 이코노미스트 ... 1983.12. 제27회행정고시합격	행시 27	455	-	-	국제 금융 · 외환 통화	UCLA 경제학 박사 (1994)  서울대 행정학 석사 (1986)  서울대 경제학 학사 (1984)  인창고등학교	문재인 측 인사  - 기업은행 관련, 장하성 형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사건 수습 중 기업은행의 낙하산 인사 논란 - IBK 그룹은 낙하산 및 공무원 재취업 단골 공공 금융기관임. 정치권, 금융관료, 행정부 출신 인사가 지속적으로 가는 금융기관임.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는 등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음. - IBK는 대대로 기획재정부 등 낙하산 또는 관료출신 자리임. * 기업은행 기획재정부 자본 53.1%
19		<b>허성욱</b> (과기부 출신, 기재부 경력자)	1970	<b>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022년 2월	2022.2~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20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2020.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202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2018.11.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201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장 1992. 제28회기술고시합격	기술 28	350	-	-	ICT 산업 진흥 · 투자 지원 (메타버스)	요크대 경영학 석사  한양대 전자통신공학 학사 (1992)  창원고등학교	과기부 출신 기재부 경력자  취임 후 예정사항 - 메타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지원을 위해 과기부와 함께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상 179억원 지원 - '이음5G 융합서비스' 실증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480억 원 구축 지원 - 인사개편, SI반도체팀 신설
20		<b>진승호</b>	1962	<b>한국투자공사 사장</b> (기획재정부 산하)  - 문재인 정부 인사 -	2021년 5월	2021.5~현재 제8대 한국투자공사 사장 - 2022.2~ 외교부 금융협력대사 (겸직) 2019.2~202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단장 2014.9~2017.8.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등 201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2009.4. 미래기획위원회 파견 2006.4.~2008.3. 재정경제부 세계실 국제조세과장 등 ... 1989. 제33회행정고시합격	행시 33	398	-	-	국제 금융 (대외협력)	맨체스터대 석·박사,  서울대 국제경영학 학사  대전고등학교	특이사항 없음  *한국투자공사법 제17조에 따라, 사장추천위 추천 > 운영 위 심의 > 기재부장관 제정 > 대통령 임명

<p>21 (현재공석)</p>	<p>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기획재정부 산하)</p>	<p>-</p>	<p>(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출입은행장 역임)</p>
<p>예산 ₩25,000,000,000 원</p> <p>연봉 ₩ 203,436,000 원</p>			
<p>22 박성훈 1971</p> 	<p>대통령실 기획비서관 - 부산시 경제부시장, 국민의힘 소속 -</p> <p>2022년 5월</p>	<p>2022.5~현재 대통령 정책조정기획관실 기획비서관 2022.3~2022.4. 제20대 대통령직인사위원회 경제보좌관역 2021.12~2022.3.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2021.4~2021.11. 박형준 부산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2021.1~2021.3. 국민의힘 압당 부산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예비후보 낙선 2019.12~2021.1.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2019.~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파견직 201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장 ... 2015.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기획조정실 과장 ... 2011. 대통령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이명박 정부) ... 2008. 세계은행 금융산업전문가 (시니어이코노미스트) ...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서기관 ... 2001. 제43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33기) 1993. 제37회행정고시합격</p>	<p>행시 37</p> <p>· 329 6 -</p> <p>· 사시 43</p> <p>지역 경제 · 금융 · 재정 예산</p> <p>허버드대 행정학 석사 · 서울대 정치학 학사 (1994) · 부산 동성고등학교</p> <p>1. 엘리트 공직자 출신 - 서울대-허버드 라인 2. 국민의힘 정치경력 - 박형준 부산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짐 -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경제특별보좌관 시절 ▲센텀2지 구 개발추진, ▲그린벨트 해제, ▲부산항 북항2 항만 재개발 사업추진, ▲철도차량기지 이전, ▲경부선 지하화, ▲한국판뉴딜, ▲부산국제금융센터 추진, ▲서부 산의로연 이전 등 3. 아래 23. 감병환(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김윤일 (현 대통령실 미래전략비서관, 전 부산시경제부시장, 비기재부 출신) 모두 부산 출신 - 김윤일 부산시경제부시장은 박성훈의 직전 후임</p>
<p>예산 - 원</p> <p>연봉 ₩ 109,769,344 원</p> <p>※ 1급 12%상여금 및 고위공무원 직무급 가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 최대 140,853,000원</p>			
<p>23 김병환 1971</p> 	<p>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2022년 5월</p>	<p>2022.5~현재 대통령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2021.2~2022.5.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2020.2~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2015.8~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14.8~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등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1993. 제37회 행정고시</p>	<p>행시 37</p> <p>338 - -</p> <p>거시 경제 · 정책</p> <p>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 서울대 경제학 학사 (1994)</p> <p>위 22. 박성훈(현 대통령실 기획비서관), 김윤일 (현 대통령실 미래전략비서관, 전 부산시경제부시장, 비기재부 출신) 모두 부산 출신 (소위 "트리오")</p>
<p>예산 - 원</p> <p>연봉 ₩ 95,983,552 원</p> <p>※ 2급 12%상여금 및 고위공무원 직무급 가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 최대 140,853,000원</p>			
<p>24 이석균 1962</p> 	<p>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국토교통부 산하) - 퇴직자 재취업-</p> <p>2021년 6월</p>	<p>2021.6.~현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 상임이사 2020.9.~2021.5. 기획재정부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추진단 재정정보공개과장 2017.~ 정부 정보화협의회(전산 공무원 친목단체) 2015.10.~2020.9.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팀관리단 파견근무 시스템구축팀 과장 2011.5.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 1991.5. 경제기획원</p>	<p>N/A</p> <p>360 - 53</p> <p>예산 재정 (정보화)</p> <p>-</p> <p>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출신들이 가는 자리로 알려졌지만, 기재부 3급 이상 출신들이 임원으로 가는 자리이기도 함. 한국부동산원의 지분은 2021년 기준 기획재정부가 49.4%로 가장 많이 보유 하고, 이어 산업은행이 30.6% 등을 갖고 있었음. 때문에 지분에 의한 기재부 파워로 임원급 출신의 재취업 사례가 많음. 한편, 정부정보화협의회는 정부 "전산인화"로 불리는 단순 친목 단체로 시작해서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두 아우르는 국회, 대법원, 정부 18부 4처 16청의 전산 담당 사무관 이상 부이사관, 서기관 등이 회원으로 참여함.</p>
<p>예산 (₩ 138,506,000,000 원)</p> <p>연봉 ₩ 115,272,000 원</p>			
<p>25 황병기 -</p> 	<p>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교육부 산하) - 퇴직자 재취업-</p> <p>2021년 7월</p>	<p>2021.7.~현재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2020.9.~2021.7.11.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장(명예퇴직) 2019.7.~ 기획재정부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 재정정보공개과장 ... 국무조정실 재정경제원 감사관실 1993.7. 급공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발령.</p>	<p>7급 공채</p> <p>332 - -</p> <p>예산 재정 (정보화) · 윤리 감사</p> <p>영남대 행정학과 학사 · 영진고등학교</p> <p>특이사항 없음 *한국장학재단 정관 제12조(임원의 임면) 제2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임명</p>
<p>예산 (₩ 5,221,071,000,000 원)</p> <p>연봉 ₩ 173,965,000 원</p>			



26		윤채영	1962	<p><b>한국재정정보원 상임이사</b> (기획재정부 산하) - 퇴직자 재취업- 2019년 5월</p> <p><b>예산</b> (₩ 68,878,000,000 원) <b>연봉</b> ₩ 117,118,000 원</p>	<p>2019.5.~현재 한국재정정보원 상임이사 2017.2.~2019.4.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2015.8.5.~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관리팀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 서기관 2014.4.~2015.2. 기획재정부 충청남도 재정협력관 파견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서기관</p>	-	336 (추정)	-	-	예산 재정 (정보화)	-	<p>2022.5.2. 차로 임기 만료 - 한국재정정보원 정관 제6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장 임명 - 한국재정정보원 내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 역임</p>
27		이성한	1957	<p><b>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b> (금융위원회 산하) - 퇴직자 재취업- 2021년 4월</p> <p><b>예산</b> (₩ 50,000,000,000 원) <b>연봉</b> ₩ 30,000,000 원</p>	<p>2021.4.~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 2019.2.~21.2. 한국국제협력단 비상임감사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SGI서울보증 비상임이사 2016.3.~2021.3. 신한카드 사외이사 2010.5.~ 국제금융센터원 원장 2008.3.~2009.2.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 등 ... 1997.12.~2000.1.OECD 사무국 근무 1981.~ 재정경제원(4급) 입부 2021.9.~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겸직)</p>	행시 24	349	-	144	국제 금융 (대외 협력)	<p>중앙대 국제학 박사 일리노이대 경제학 석사 연세대 경영학 학사 성동고등학교</p>	<p>특이사항 없음</p>
28		김용환	1958	<p><b>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b> (국토교통부 산하) - 퇴직자 재취업.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경비서관 - 2021년 9월</p> <p><b>예산</b> (₩ 0 원) <b>연봉</b> ₩ 30,000,000 원</p>	<p>2018.3.~현재 제11대 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이사 2017.5.~ 한국특허전략 개발원 사외이사 2016.9.~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수석부회장 2016.6.~2018.3. 호텔롯데 사외이사 2016.3.~2018.3. 신용보증기금 사외이사 2013.~ 한국언론인공제회 이사 2013~201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초빙교수 2012.1.~2013.3. 제38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010.~ 청와대 국정과제 제1비서관 (이명박 정부) 2008.~2010. 기획재정부 예산총괄 심의관 등 2001.~2007.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 등 ... 1982. 기획예산처 입부</p>	행시 25	372	-	109	예산 재정 (사회)	<p>컬럼비아대 국제통상법 박사수로 아사아공과대 도시개발학 석사 서울대 무역학 학사 대신고등학교</p>	<p>특이사항 없음</p> <p>- 인천국제공사 김경욱 사장(전 국토부 제2차관, 더불어민주당 총주시당 출신)과는 별다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측됨.</p>
29		홍동호	1960	<p><b>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b> (금융위원회 산하) - 퇴직자 재취업- 2020년 12월</p> <p><b>예산</b> (₩ 22,780,000,000 원) <b>연봉</b> ₩ 30,000,000 원</p>	<p>2020.12.~현재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2017.1.~2020.1.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2013.9.~ 주일본대사관 경제공사 2012.2.~2013.6.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재정업무관리관 직무대리 2010.2.~2012.2.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등 ... 1984.~ 경제기획원 입부 2021.07.09.~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p>	행시 27	390 (추정)	-	64	재정 (건전성)	<p>서울대 행정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학사 경기고등학교</p>	<p>특이사항 없음</p> <p>*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추위 운영규정에 따라, 임추위 추천 &gt;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p>
30		하성	1959	<p><b>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b> (기획재정부 산하) - 퇴직자 재취업- 2021년 7월</p> <p><b>예산</b> (₩ 0 원) <b>연봉</b> ₩ 30,000,000 원</p>	<p>현재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초빙교수 2015.6.~ 한국은행 감사 2013.11.~2015.5.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 공동단장 2010.2.~2013.10.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세제실관, 재정정책관 2007.4.~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2005.1.~ 기획재정부 사회재정3과과장, 복지재정과장 ... 1983. 제27회행정고시합격</p>	행시 27	374	-	84	예산 재정 (사회)	<p>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고려대 경제학 학사 홍익대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p>	<p>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설립 추진</p> <p>*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임추위 추천 &gt; 운영위 심의의결 &gt; 기재부 장관 임명</p>

31		남봉현	1962	<b>한국재정정보원 비상임이사</b> (기획재정부 산하) - 퇴직자 재취업-	2020년 6월	2020.6.~현재 한국재정정보원 비상임이사 2017.2~2019.11 제5대 인천항만공사 사장 2015.1~2016.12.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2013.4~2014.12.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2012.12~2013.4.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협동조합 정책관 2010.10~2012.6. 환경부 감사관 2005.2~ 기획재정부 특구·확과장, 산업관세과장, 국고과장 ... 1985. 제29회 행정고시	행시 29	404	-	23	해양 산업 · 국고 (관세)	미주리대 경영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1997) 서울대 경제학 학사 (1985) 부평고등학교 (1981)	2022.6.3. 자로 임기 만료 - 한국재정정보원 정관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32		정무경	1964	<b>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비상임이사</b> (국토교통부 산하) - 퇴직자 재취업, 문재인 정부 조달청장 -	2022년 3월	2022.3.~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 2018.12~2020.11. 조달청 청장 2017.9~2018.12.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2015.10~2017.9. 기획재정부 대변인 2013.10.~ 기획재정부 민생경제 정부관계 국제경제 정책관 2012.1. 국무총리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2010.2. 국회기획재정부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이명박 정부)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장 등 2006.9~ 1987.11.~ 제31회 행정고시	행시 31	396	-	2	조세 관세	고려대 행정학 박사 워릭대 법학 석사 서울대 정책학 석사 고려대 경제학 학사 광주 등신고	문정부 임기말 대선 이틀 전 낙하산 인사 논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25조 / 임추위운영규정에 따라, 임추위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 기재부장관 임명
33		류용섭	1956	<b>한국부동산원 비상임이사</b> (국토교통부 산하) - 퇴직자 재취업 -	2019년 3월	2014.1.~2017.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제3대 원장 2013.4.~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조정국장 2011.5~2013.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조정국장 2008.2~2011.4. 기획재정부 2004.4~2008.2 기획예산처 과장 ...	비고 시	444	0	0	R&D 예산, 인력 개발	중앙대 경제학 학사 강화고등학교	한국부동산원 재취업 관련, 위 24 참조. 현재 2022.03.05. 부로 임기 만료 *정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 심의 의결(기재부) > 주총 의결 > 기재부 장관 임명
34		이국형	1962	<b>한국국토정보공사 비상임이사</b> (국토교통부 산하) - 퇴직자 재취업-	2021년 12월	2021.5.~현재 재단법인 스마트건설교육원 원장 2018.8.~ 기획재정부 국장 2016~2018. 조달청 기획조정관 2016.5.~2016.8.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총괄과 ... 2013.12.~2016.2.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고용휴직 ... 2013.7.9. 기획재정부 예산실 2009.7.~2010.3. 미래기획위원회 파견 근무 ... 기획재정부 기획처 재정감시기획관, 정책관리담당관 등 ... 1988. 제32회 행정고시	행시 32	361	-	12	재정 (건전성)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 방문학자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서울대 경제학 학사 경성고등학교	특이사항 없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제2항 / 임추위 규정에 따라, 임추위 복수 추천 > 국토부 장관 임명



35



나주범

**기재부 현 국장 겸 한국재정정보원 비상임이사**  
(국토교통부 산하) 2020년 5월  
- 공공기관 당연직 이사 -

기관	예산(백만원)	연봉(원)
기획재정부	-	82,044,480
한국재정정보원	(68,878)	27,600,000
<b>합계</b>	<b>예산 (₩ 68,878,000,000 원)</b>	<b>연봉 ₩ 109,644,480 원</b>

※ 기획재정부 예산 제외, 3급상당 12%상여금 가정

2020.5.~현재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국장  
- 한국재정정보원 비상임이사 (국토교통부 산하)  
2018.5.~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정책기획위원회 사무처 국경연구과장  
2009.2.~ IMF 자문관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장, 복권총괄과장,  
경영혁신과장, 재무경영과장, 협력총괄과장  
...

행시 35

362

정책  
·  
재정  
(건설성)

특이사항 없음

\*한국재정정보원 정관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36



임기근

1968

**기재부 현 심의관 겸 5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021년 5월  
- 공공기관 당연직 이사 -

기관	예산(백만원)	연봉(원)
기획재정부	-	82,044,480
한국지능정보사회화진흥원	(1,623,036)	10,941,000
한국인터넷진흥원	(253,943)	2,800,000
한국과학기술원	(240,858)	13,954,000
한국원자력연구원	(56,655)	1,100,00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9,486)	2,120,000
<b>합계</b>	<b>예산 (₩ 2,183,978,000,000 원)</b>	<b>연봉 ₩ 112,959,480 원</b>

※ 기획재정부 예산 제외, 3급상당 12%상여금 가정

2021.5.~현재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겸 비상임이사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20.1~2021.5.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2017.9~2020.1.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2015.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  
2013.5.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  
...

행시 36

350

정책  
·  
예산  
·  
재정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영학 학사  
송원고등학교

공공기관 당연직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4조에 따라, 정부 인사발령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관 제15조(이사)에 따라, 정부 인사발령

\*한국인터넷진흥원 정관 제5조에 따라, 당연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관 제5조에 따라, 당연직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관 제6조에 따라, 당연직(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37



한경호

1966

**기재부 현 심의관 겸 17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교육부, 국가보훈처 산하) 2022년 1월  
- 공공기관 당연직 이사 -

기관	예산(백만원)	연봉(원)
기획재정부	-	82,044,48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72,093)	4,148,0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21,746)	7,000,0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1,697)	900,000
경북대학교병원	(35,137)	1,333,000
충남대학교병원	(32,420)	675,000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1,748)	900,000
충북대학교병원	(30,876)	600,000
한국고전번역원	(22,493)	1,500,000
전북대학교병원	(20,564)	0
전남대학교병원	(18,738)	1,200,000
제주대학교병원	(8,887)	600,000
강원대학교병원	(6,515)	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2,711)	0
경원대학교치과병원	(2,025)	360,000
부산대학교병원	(1,032)	0
경북대학교치과병원	(750)	400,000
한국사학진흥재단	(0)	8,000,000
<b>합계</b>	<b>예산 (₩ 1,099,432,000,000 원)</b>	<b>연봉 ₩ 109,660,480 원</b>

※ 기획재정부 예산 제외, 3급상당 12%상여금 가정

2022.01.28.~현재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겸 비상임이사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강원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사학진흥재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9.3.~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재정성과심의관  
2017.1.3.~2019.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2014.12.~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장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장  
2008.5.~2009.5.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파견  
...

행시 36

350

예산  
·  
재정  
(사회)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수로)  
서울대 경영학 학사

공공기관 당연직 이사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당연직;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제9조 및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정관 제8조에 따라, 당연직;


\*한국고전번역원 정관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17조에 따라, 당연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관 제17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 이사;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7조 및 정관 제5조에 따라, 당연직 인사발령;



38	박봉용	1970	국가보훈처 현 국장 겸 2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 당연직 이사-	2021년 7월	현재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현) - 88관광개발(주)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장 등	행시	302	-	12	북한 경제 · 예산 재정 (사회)	조지타운대 행정학 석사 (2013)	공공기관 당연직 이사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th> <th>예산(백만원)</th> <th>연봉(원)</th> </tr> </thead> <tbody> <tr> <td>기획재정부</td> <td>-</td> <td>80,859,072</td> </tr> <tr> <td>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td> <td>(321,746)</td> <td>7,000,000</td> </tr> <tr> <td>88관광개발(주)</td> <td>(3,480)</td> <td>2,000,000</td> </tr> <tr> <td>합계</td> <td>예산 (₩ 325,226,000,000 원)</td> <td></td> </tr> <tr> <td></td> <td>연봉</td> <td>₩ 89,859,072 원</td> </tr> </tbody> </table>	기관	예산(백만원)	연봉(원)	기획재정부					-	80,859,07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21,746)	7,000,000	88관광개발(주)	(3,480)	2,000,000	합계	예산 (₩ 325,226,000,000 원)			연봉	₩ 89,859,072 원
기관	예산(백만원)	연봉(원)																							
기획재정부	-	80,859,07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21,746)	7,000,000																							
88관광개발(주)	(3,480)	2,000,000																							
합계	예산 (₩ 325,226,000,000 원)																								
	연봉	₩ 89,859,072 원																							
39		김경지	1966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감사위원) (국토교통부 산하) - 퇴직자 재취업 -	2019년 4월	2019.6~2019.12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금정구 지역위원장 2019.4~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 (검직) 2018.11~현재 변호사김경지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2018.7.~ 한국중부발전 비상임이사 2014.6~2017.12.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개방직) ~2008.5.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실 사무관 1999.4. 전라남도청 예산담당관실 사무관	행시 42 · 사시 46	243	6	126	납세 세금	KDI 경제정책학 석사 (2004)	1.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 "캡코더(경력 관리용 직위)" 인사 논란(위 2. 추경호 의원시절 문제제기)												
				예산 (₩ 0 원) 연봉 - 원	2019.6~2019.12	부산대 경제학 학사 (2989) 부산 영도여고 (1985)	2. 2022.04.01. 부로 임기 종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7조에 따라, 임추위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 주총 결의 > 기재부 장관 임명																		

## 부록 2. 분석방법 및 사후검정

IBM Corp. SPSS Statistics V.21: x86, Active Memory Exp. 1,028MB  
MS Office 365 Excel: x64 (≈1028MB)

□ (데이터 설계/수집/분석/검정) N=545개 직위자의 프로필을 검색 및 수집하여 아래 항목과 같이 데이터 수집하여 분석/검정함.

항목	수집/관측 데이터 값	측도	분석/검정 방법
순번	숫자(ID)	명목	• 실명확인
사진	이미지	-	※ 분석/검정 시 성명 및 사진 삭제, 순번으로만 구분
성명	문자	명목	
출생년도 <도표4>	숫자	등간척도	• 실명확인 • 빈도분석 • 교차분석(독립/동질성검사)
중복/공석 (필터)	동일인(겸직자, 고등고시 동시 합격자) 공석	명목/실질	• 실명확인 • 측도기준 변경 통계표작성
기관형태 (소분류) <도표11(좌), 도표16(좌)>	행정부(정부기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검정 <도표15> 회전문 인사 검정 <도표25>
기관업무 (소분류) <도표11(우), 도표16(우)>	경제(과학기술, 국토교통, 금융, 노동, 농업, 조달, 재정세제, 중소기업, 산업통상, 경제일반), 사회(보건, 복지, 교육, 문화, 법무, 안전, 환경, 사회일반), 외교안보(외교, 안보, 국방, 통일), 총괄(행정, 인사)	명목적도	• 기술통계 • 빈도분석 • 교차분석(독립/동질성검사)
자기 전문분야 <도표17>			
현재 소속기관 <도표12, 13, 14>	현재 소속기관(명) 내 출신자(수, 비중) 직전 소속기관(명) 내 출신자(수, 비중) 현재-직전 소속기관 내 출신자 증/감(수, 성장률) 공직출신별(명, 비중) 민간출신별(명, 비중)		분산도, 집중도, 이합집산도 측정 <도표22> • 적합도 검증 비중편차 확률밀도함수 가우스 적분값으로 적합도 단축 검증 - 편미분(베르누이, 블랙숄츠) - 등비수열(야코비 행렬) - 베타함수(가우스-페르마적분법)
직전 소속기관	출신기관 내/외 일원분산 표준편차 <도표22 이하 분산도> 전/후 비중편차값 <도표22 이하 집중도>	명목적도 등간척도 파이제곱측도	• 신경망분석 신뢰도 검증 F-분포 공변량 표준화 분석 및 방사형 누적분포함수 정규화 검정 <도표23> • 군집밀도 분석 및 품질 검증 - 다변량 공분산행렬 동질성 검정 균형위험도(Risk Parity) 측정 <도표23> 기관별 균형위험도 = $\sqrt{[(\omega_{\text{공직}} \cdot \sigma_{\text{전}})^2 + (\omega_{\text{민간}} \cdot \sigma_{\text{공직-민간}})^2 + 2(\omega_{\text{공직}} \cdot \sigma_{\text{전}} \cdot \omega_{\text{민간}} \cdot \sigma_{\text{공직-민간}})]} / \sum \omega \cdot \sigma_{\text{전체}}$
출신기관 <도표2, 18>	비중편차 = $\sqrt{[(\omega_{\text{전}} \cdot \sigma_{\text{전}})^2 + (\omega_{\text{후}} \cdot \sigma_{\text{후}})^2 + 2(\omega_{\text{전}} \cdot \omega_{\text{후}} \cdot \sigma_{\text{전}} \cdot \sigma_{\text{후}})]}$ $\omega$ =관피아 비중, $\sigma$ =일원분산 표준편차 출신기관별 누적분포함수 미분값(확률밀도함수)		



현재/직전 계급 <도표5, 6>	원수, 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 준차관(위탁형, 시장형, 기타), 차관보, 1급, 2급, 3급	순서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차분석(독립/동질성검사)</li> <li>•신뢰도 검증</li> </ul>
	전체 데이터수(545개) ÷ 계급 위 순서척도(1~12)	등간척도	
공직/민간 출신 <도표2> 등	행정고시, 기술고시, 사법고시 및 사법연수원, 외부고시, 군인기수(육사, 해사), 4급, 5급, 7급, 9급, 비고시, 기타(미확인), 경찰, 소방, 공공기관, 학계(공공기관)	등간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신별 평균분석</li> <li>•출신간 교차분석</li> <li>•출신내 상관분석</li> </ul>
	학계(사립대), 개안단체, 정치, 기업, 언론, 종교	명목척도	
경력 <도표26>	정부경력(유/무, 개월수)	명목척도	낙하산 인사 검정 <도표15>
	정치경력(유/무, 개월수)	명목척도	회전문 인사 검정 <도표25>
	민간경력(유/무, 개월수)	등간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신별 다중응답빈도/교차분석(독립/동질성검사)</li> <li>•출신간 상관분석</li> </ul>
예산 <도표20>	행정부처별 예산(총지출기준), 공공기관별 사업수입 및 기금수입(정부지원)	등간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신별/간 평균분석</li> <li>•출신간 교차분석(독립/동질성검사)</li> </ul>
보수 <도표21>	「국가공무원법」(계급별 고정급 / 호봉별 기본급 + 직무급+ 12% 상여급) 연봉(상임기관장, 비/상임 이사 및 감사)	등간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력기간별 상관분석</li> </ul>
권력순서	계급, 고등고시기수, 출생년도, 민간출신 경력기간(개월수)	순서척도 등간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열순 통계표작성 (부록1)</li> <li>•교차분석(독립/동질성검사)</li> <li>•&lt;도표&gt; 전체 신뢰도 검증</li> </ul>

## □ 검정기준

### ○ 정규분포: 표본 집단 신뢰도 95%수준

- (95%신뢰구간 가정) F-분포 양측 검정, 정규화 단측 검정, 3/4분위 일괄 폐기
- (표기)  $P^* < 0.05$ ,  $P^{**} < 0.01$ ,  $P^{***} < 0.001$ ,  $P \geq 0.05$ : “신뢰할 수 없음 (기각)”

### ○ 교차분석: 출신 집단간/내 종속변수의 변량차이를 분석하여 독립변수를 조사함

- (원칙) 중립성 추정에 따라 모든 항목에 대해 출신 집단간/내 교차검증한 수치가 0.4 이상일 경우 종속관계 추정, 0.5 이상일 경우 상관관계 추정, 0.7 이상일 경우 영가설 가정 및 동질성을 검정함. 1.0의 경우 관측수 N=21개 미만일 경우 일괄 기각함 <상관계수 해석>.



- (검정) 명목 대 구간 : 람다<sup>12)</sup>

명목 대 명목척도: 파이 및 크레머V (Cramer V, 표기: “CV”),<sup>13)</sup>

명목 대 순서척도: 켄달의 타우-b, 타우-c<sup>14)</sup>

명목 대 등간척도: 에타<sup>15)</sup>

☞ 2개이상 독립변수 동질성 검정: U-검정 및 T-검정<sup>16)</sup>

### < 상관계수 R 해석 >

(기각)  $0.0 \leq \text{약} < \pm 0.4 \leq \text{중} < \pm 0.7 \leq \text{강} < \pm 1.0$  (기각역)

※ CV=±1.0 기각역: 1/4분위 내에서 관측수 N=21개(빈도수) 미만일 경우 기각<sup>17)</sup>

#### < 표기 >

0.0: “종속성 없음”

0.1~0.3수준 : “유의미한 차이 없음(0.1),” “종속성 추정 어려움(0.2),”  
“약한 종속성(0.3)”

0.4~0.6수준 : “종속성 추정(0.4),”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0.5),”  
“종속성을 갖음(0.6),”

0.7~0.9수준 : “강한 종속성을 갖음(0.7),” “결정 기준(0.8),” “명백한 차이(0.9)”

1.0: “신뢰할 수 없음 (표본 신뢰도: N/21%)”

- 12) 독립변수의 값이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때 오차 내 비례 축소를 반영하는 연관 척도입니다. 값 1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완전하게 예측한다는 의미이고, 값 0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IBM, 2021) URL: <https://www.ibm.com/docs/ko/spss-statistics/beta?topic=crosstabs-statistics>
- 13) 파이는 카이제곱 통계량을 표본 결과로 나누고 그 결과의 제곱근을 구하는 연관 척도에 기반한 카이제곱입니다. Cramer의 V는 카이제곱을 기반으로 한 연관 척도입니다 (ibid).
- 14) Kendall의 타우-b: 동률을 고려하는 순서변수나 순위변수에 대한 비모수 상관 척도입니다. 계수의 부호는 관계의 방향을 나타내고 이에 대한 절대값은 강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절대값이 클수록 관계가 더 강력합니다. 가능한 값의 범위는 -1부터 1까지이지만 -1 또는 +1 값은 제곱표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Kendall의 타우-c: 동률을 무시하는 순서변수에 대한 비모수 연관 척도입니다. 계수의 부호는 관계의 방향을 나타내고 이에 대한 절대값은 강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절대값이 클수록 관계가 더 강력합니다. 가능한 값의 범위는 -1부터 1까지이지만 -1 또는 +1 값은 제곱표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ibid).
- 15)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 척도로서, 0은 행 변수와 열 변수 간에 연관이 없음을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연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에타는 구간 척도(예: 수입)에 대해 측정된 종속변수와 범주(예: 성별)의 수가 제한된 독립변수에 적합합니다. 두 에타 값이 계산되는데, 하나는 행 변수를 구간변수로 처리하고 다른 하나는 열 변수를 구간변수로 처리합니다 (ibid). 에타의 경우 0.14보다 클 때 ‘강한 종속’을 갖음
- 16) 독립성 검정에서 제외된 외부적인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정하려는 요인과 다른 요인 간의 평균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여 독립변수의 신뢰도를 검정하는 것을 말함. URL: <https://www.ibm.com/docs/ko/spss-statistics/beta?topic=tests-independent-samples-t-test>
- 17) 본 통계분석에서는 기획재정부(N=10, CV=1.0) 등 집단 내 관측값 21개 미만일 경우 신뢰하지 않고 일괄 기각함.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는 ‘통계적 사실’로서 추정할 수도 있는 실측값임을 알림. 참고로, SPSS가 제시하는 CV 해석 기준은, ‘약  $\leq 0.2 < \text{중} \leq 0.6 < \text{강}$ ’으로서, 본 통계조사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독립성 검정을 실시함.



□ 모델 검정 및 적합도 검증

○ (계급) 아래 <분류기준>에 따라 1~12순위로 순서/등간척도로 분류하여 교차검정 및 그 신뢰도를 검증함.

- (순서척도) 1=원수, 2=총리, 3=부총리, 4=장관, 5=차관, 준차관(6=위탁형, 7=시장형, 8=기타), 9=차관보, 10=1급, 11=2급, 12=3급

- (등간척도) 순서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 수(N=545개) ÷ 계급 순서척도(1~12)'로서, 원수=545, 총리=545/2, 부총리=545/3, 장관=545/4, 차관=545/5, 준차관(위탁형공공기관장=545/6, 시장형공공기관장=545/7, 기타공공기관장=545/8), 차관보=545/9, 1급=545/10, 2급=545/11, 3급=545/12 순으로 계급간 권력값을 역수로 측정하여 영점을 제거하고 등간척도(모델값)를 사용하여 위 순서척도의 적합도 (영가설: "출신집단별 계급간 상명하복의 상관관계는 동일하다.")를 검증함.

∴ (검정결과) 순서척도 및 등간척도 모두 동일한 관측값이 각각 관측되었으므로 영가설 기각은 타당하고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 <도표5, 6>.

< 직책에 따른 공직자 계급 분류기준 >

Table with columns for rank (대수, 급수) and various job titles (일반공무원, 외교공무원, 조속등교원, 고등교원, 차안공무원, 국정직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검찰, 연구직, 지도직, 전문경력관, 일반부, 사법부, 지방자치행정, 지방관련행정, 공기업, 기타). Rows list specific positions like 원수, 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 etc., with corresponding rank and job title.



○ (이합집산도) ‘이합집산(離合集散)’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한다는 뜻으로, 출신집단별 분산 및 집중의 변동성(비중간 표준편차)에 따라 확률공간 내 분포가 중첩된 방사형 누적분포함수의 정규값<도표22>로서 명명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측정한 뒤 모델값으로 적합도를 검증함 .

- (정의) 누적분포함수는 관측된 확률공간( $\Omega$ -표본공간, F-분포, Pr-확률) 내 변수(X)가 특정 실수값( $x_n$ )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변수(R)를 등비수열 (1)의 합 공식으로 나타낸 베타함수(2)로 정의됨.<sup>18)</sup>

$$(1) - F_X(x_1, \dots, x_n) = \Pr(X \leq x_n \in -\infty, x) \quad \forall x \in R$$

$$(2) - X = (X_1, \dots, X_n) : \Omega \rightarrow (R, \beta(R^n))$$

$$\beta(x, y) = \int_0^1 t^{x-1}(1-t)^{y-1} dt = \frac{\Gamma(x)\Gamma(y)}{\Gamma(x+y)}, \quad \Gamma(x) = \int_0^\infty e^{-t} t^{x-1} dt$$

$$\beta(x, y) = 2 \int_0^{\pi/2} \sin^{2x-1}\theta \cos^{2y-1}\theta d\theta, \quad R(x) > 0, R(y) > 0$$

$$\beta(x, y) = \int_0^\infty \frac{t^{x-1}}{(1+t)^{x+y}} dt, \quad R(x) > 0, R(y) > 0$$

18) 베타함수(Euler, 1730)는 ①오일러적분(1종 베타), ②가우스적분(Gauss-Wantzel, 1801-1836), 외에도 변수(t)로 치환하여 ③감마적분(2종 베타), ④야코비행렬(Jacobi, 1804-1851)로 계산할 수 있음. 본 통계분석에서는, 관피아 비중에 따른 분산도 및 집중도에 가중치가 부여된 표준화된 비교척도인 ‘비중편차[조화평균과 달리, 비중편차는 포트폴리오 선택이론(Markowitz, 1952)의 분산 위험에 따른 비중간 표준편차(피타고라스 평균)]’를 측정하여 F-분포 집단 내 일원분산 및 집단간 분산-공분산행렬을 표준화(standardization)하여 확률밀도를 (1)과 같이 추정하였고, 이에 따라 편미분방정식을 적용한 관피아 비중의 변화량(확률밀도)을 (3)과 같이 델타( $d_1, d_2$ )계수로 하는 정규화(normalization, R=95%)된 불완전 베타함수(4)를 적용함. 이에 불완전 베타함수를 구하기 위해 이합집산도 검증 단계에서 누적분포 내 확률밀도의 다변량 공변량을 측정하기 위해 ⑤베르누이 미분방정식(Bernoulli, 1738)으로 비선형 베타함수 모수를 추정하여, 야코비행렬 누적분포도함수 및 가우스적분 누적분포함수를 구하여 적합도를 검증하고 이합집산도를 제시함. 사후검증단계에서는 해당 모형(불완전 베타함수)의 불확실성(극좌표계 벡터 및 표준 오차 허수값의 브라운 운동에 따른 엔트로피)를 확인하여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⑥블랙-숄츠 미분방정식(Black-Scholes, 1997) 모델을 인용하여 파이제공급척도로서 이합집산도를 재검증함. 즉, 정규화된 이합집산도 모델 (5)은 중립성 추정에 따라 출신지(n=545개 중 389개)를 요인으로, 출신집단(직전소속기관)내 이항계수 $F(d_1, d_2)$ 를 분할변수(3)로, 출신집단(현재소속기관)간 다항계수 $F(x_1, \dots, x_n)$ 를 종속변수(1)로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방사형 공변량분석(신경망분석)’을 통해 앞서 추정된 모수, 배타계수, 상수, 독립변수의 적합도를 재검증하고, 또한 관 피아간 비중편차 가중치 역시 종속변수(H)간 군집밀도에 따른 신경망 가중치(synaptic weight)로 재검정하여 엔트로피를 측정하여 신뢰도를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F-분포 내 출신집단별 요인들의 집중도와외 동 질성/상이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K-평균군집분석 및 정규분포 내 요인들간 군집밀도(DBSCAN, 소위 ‘가장 가까운 이웃’)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했고, F-분포의 벡터에 따라 조정된 정규분포인 <도표22>와 더불어 누적분포 모수의 총량을 1로 조정된 균형위험도인 <도표20>로 환산하여 함께 제시함. 즉, ①②③⑤로 측정 분석, ④⑥으로 재검증했다.



- (부산도) 출신기관별 누적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공간 n=545개 직위의 개별 인사이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직전 소속기관과 현재 소속기관 간의 1:1 인사이동에 따른 두 기관 내 직위 수(변수)의 변화량을 각각  $d_1, d_2$ 의 변화율(델타계수,  $dx, dy$  편미분값)로 하는 일원분산을 측정(3)하여 출신기관(중립가정  $Z$ =종속변수)별 분산도를 표준편차( $\sigma$ )로서 제시함. 19)
- ☞ 해석: 절대값이 클수록 분산도가 높음

$$(3) - d_2 = \frac{R_{\text{후}}/R_{\text{후}}^2}{R_{\text{전}}/R_{\text{전}}^2} = d_1 - \sigma \sqrt{t}, t = \sin^2 \theta, \theta = \frac{n_z}{n}$$

$$\sigma = \sqrt{(w_{\text{전}} * \sigma_{\text{전}})^2 + (w_{\text{후}} * \sigma_{\text{후}})^2 + 2(w_{\text{전}} * \sigma_{\text{후}})}$$

< (3)일원분산 분석 결과 >

변동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집단-내	13769.96	51	269.9992	5.688801	1.95E-09	1.587389
집단-간 (조합)	5.46E-12	1	5.46E-12	3.43E-14	1	3.934253

- ☞ 해석:  $n_z=51$ 개 출신기관,  $n=545$ 개 직위 중 공석 12개를 제외한 케이스처리 유효값  $N=533$ 개 직위의 비중편차(분산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51개, “직전/현재 소속기관간 1:1 인사이동에 따른 분산도(비중편차)가 동일하다.” 는 영가설은 거짓임을 확인.

∴ 출신여부에 따라 일원분산에는 차이가 있고 출신기관을 독립변수로 가정하는 것은 타당함. 다만, 기관간 동분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일원분산만으로 추정할 수 없음. 다변량 공분산분석이 요구됨.

19) 분산도는 ①분산, ②표준편차, ③확률밀도함수를 일반적으로 사용함. 집중도/분산도 모두 일원분산 값에 관피아 비중간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통일된 척도로 제시함.

한편, 분산도 외에도 ‘군집도 분석’을 통해 관피아 51개 출신기관 내 산하기관을 2계층으로 분할하고 주부 부처 내 공공기관을 포함한 직위 점유율 대비 타 부처 내 점유율 간의 ‘분산-공분산 행렬’을 추정하여 집단내/간 K-군집평균(조합평균)을 분석함으로써 동분산성의 차이를 통해 독립변수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 통계분석에서는 군집도 분석에 사용되는 조합평균을 이용치 아니하고 관피아 비중을 가중시키기 위해 피타고라스 평균을 채택함. 이에 따라 야코비행렬 누적분포함수(도)로 우선 재검정하였고, 신경망분석을 통해 집단내/간 다변량 공분산을 추정하여 정규화된 방사형 누적분포함수도를 제시함. 또한 사후 검증단계에서 F-분포 내 군집밀도(소위 ‘가장 가까운 이웃’)분석을 통해 집중도(군집도)의 품질검사를 했고 모형의 신뢰도를 살펴봄. 데이터 설계 단계에서 계층분할 모형을 좀 더 개량한다면 군집분석을 유의미한 측정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알림.



- (집중도) 출신기관별 분산도가 중첩된 확률, 즉 관피아 세력별 비중편차 (3)의 결과값들을 각각 (2)에 대입하여 누적분포함수[F(x)]의 미분값인 확률밀도함수[f(x)]를 구한 그 결과값들(4)이 관피아별 비중의 변화량 [F(d<sub>1</sub>, d<sub>2</sub>)]이 (1)의 정의에 따라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X > x<sub>n</sub>, 허수의 확률)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의미한 출신기관별 비중편차(3)를 집중도로서 제시함. 해석: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집중도가 높음.

$$(4) - F(x) = \int_{-\infty}^x f(t)dt, f(x) = e^{-x^2} \frac{1}{NMI} \frac{1}{\sqrt{2\pi}} \int_{-\infty}^x e^{-\frac{1}{2}y^2} dy = 1 - \frac{1}{\sqrt{2\pi}} \int_x^{\infty} e^{-\frac{1}{2}y^2} dy$$

$$F(d_1, d_2) = \frac{1}{\beta(d_1/2, d_2/2)} \left(\frac{d_1x}{d_1x+d_2}\right)^{d_1/2} \left(1 - \frac{d_1x}{d_1x+d_2}\right)^{d_2/2} x^{-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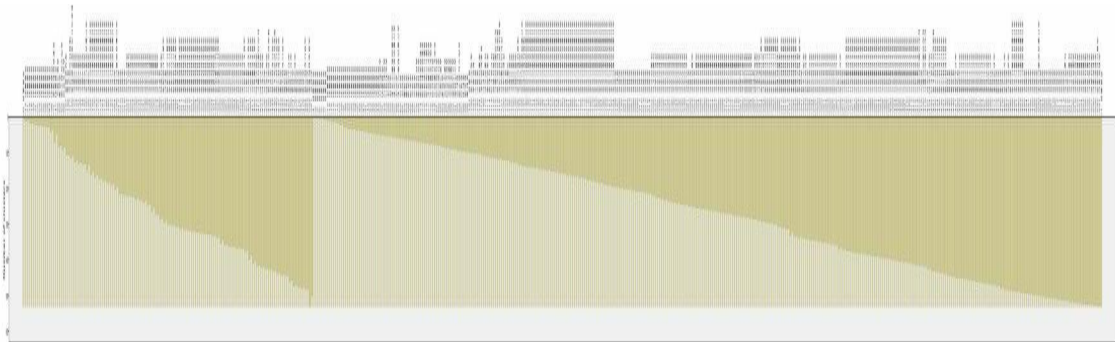
$$F(z_1...z_n) \approx \Pr(X \leq z_n \in x, \infty) \quad \forall_x \in R_z$$

<(4)출신기관별 F(d<sub>1</sub>, d<sub>2</sub>), Rn=545개 케이스처리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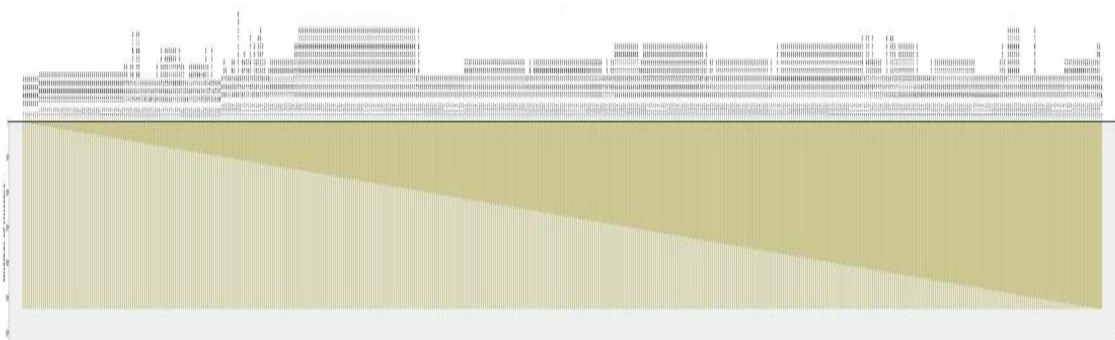
- 야코비행렬 누적분포도함수 -

\*척도:  표본공간 /  확률공간 / (기울기) 확률밀도

\*F(x,y)편미분 구간:  $-\infty < d_1 < x, y < d_2 < \infty$



- (1)의 F(X1...Xn) 등비수열의 벡터합  $\forall_{545} = R$  -



〈 모형 요약 〉		〈 분산분석 결과 〉					
다중 R	.997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R 제곱	.995	회귀분석	6358873.194	2	3179436.597	2775.747	.000
수정된 R 제곱	.994	잔차	34363.040	30	1145.435		
추정값의 표준오차	33.844	합계	6393236.233	32			
로그-우도 함수 값	193.069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표준 오차		
상수( $\alpha$ )	.001	.000			13.634	.000
집단내( $d_1$ )	.001	.000	.475	.027	17.851	.000
집단간( $d_2$ )	.001	.000	.558	.027	20.968	.000

해석: 51개 출신기관별 관피아 비중 변화량(전)을 독립변수, 출신기관간 비중 변화량(후)를 종속변수로 가정하였을 때, 기관 내 일원분산 값으로부터 독립변수로 가정된 51개 중 기관간 비중 변화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동질성이 없는) 독립변수는 최소 2개(정규분포 오차범위를 감안 하면 최대 3개: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교육부 순)임.

위 모형(누적분포도함수)의 설명력은 99.4%, 누적분포함수의 총량(모수)은 43.117이며, 확률밀도는 정규분포 내 비표준화 베타적분 계수는 0.001로서, 즉 관피아가 1명 증가하면 그 비중은 +0.1%수준으로 증함.

∴ 위 누적분포함수 모형은 표준분포(오차율 2.7% 수준의 F-분포)로서, 이를 95%신뢰구간 내 정규분포로 불완전 베타적분치환(즉, 비표준화 계수를 사용<sup>20)</sup>) 하는 것은 적합함. 물론, 야코비행렬에서 음수의 표준편차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정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준오차 구간의 극좌표계 내 허수확률(치환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음의 확률로 인한 누적분포함수의 불확실성)까지 재검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경망분석(다변량 공변량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방사형 누적분포함수도를 이합집산도(<도표22>)로서 제시하고자 함.

20) 유체역학에서 사용하는 확률밀도함수를 구하기 위한 베르누이 편미분방정식에 의한 가우스-페르마의 비표준화(비선형 다항계수) 베타적분법을 말함. 물론, 야코비행렬 누적분포도함수를 살펴봤을 때 선형계수가 눈에 보이므로 위 사례에서는 뉴턴-베르누이 베타적분법이나 고속적분법을 그냥 사용해도 무관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본 통계분석에서는 비선형 다항계수를 가정했고, 사후검증을 위해 역산과 치환적분이 가능한 가우스적분법을 사용함.

- (신경망분석) 모델 검증을 위해 다른 편미분방정식(블랙-숄츠, 1997)을 사용하여 n=545개(요인, 독립변수), 출신여부(분할변수), 인사이동에 따른 출신기관간 전/후 비중 변화량(종속변수) 간의 ‘다변량 공변량분석(신경망분석)’ 알고리즘(5)을 설계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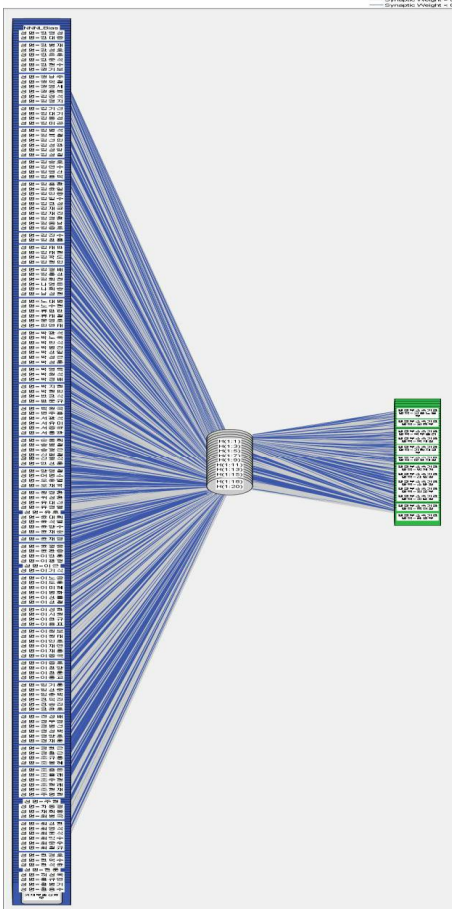
$$(5) - C(n_{\text{전}}, z) = n_{\text{후}} \Phi(d_1) - n_{\text{전}} e^{-\alpha z} \Phi(d_2)$$

$$d_1 = \frac{\ln\left(\frac{n_{\text{후}}}{n_{\text{전}}}\right) + \left(\alpha + \frac{\sigma^2}{2}\right)z}{\sigma\sqrt{z}}, \quad d_2 = \frac{\ln\left(\frac{n_{\text{후}}}{n_{\text{전}}}\right) + \left(\alpha - \frac{\sigma^2}{2}\right)z}{\sigma\sqrt{z}} = d_1 - \sqrt{z}$$

$$n_{\text{후}} \phi(d_1) = n_{\text{전}} \phi(d_2), \quad \phi(z) = \frac{1}{\sqrt{2\pi}} e^{-\frac{1}{2}z^2}$$

$$\Phi(z) = \frac{1}{\sqrt{2\pi}} \int_{-\infty}^z e^{-\frac{z^2}{2}} dz = 1 - \frac{1}{\sqrt{2\pi}} \int_z^{\infty} e^{-\frac{1}{2}z^2} dz$$

<도표23> 신경망분석 및 엔트로피 측정



< 시넵스 가중치 케이스처리 요약 >

		N	퍼센트
표본	훈련	389	100.0%
	유효	389	100.0%
	제외됨	162	
	합계	551	

< 네트워크 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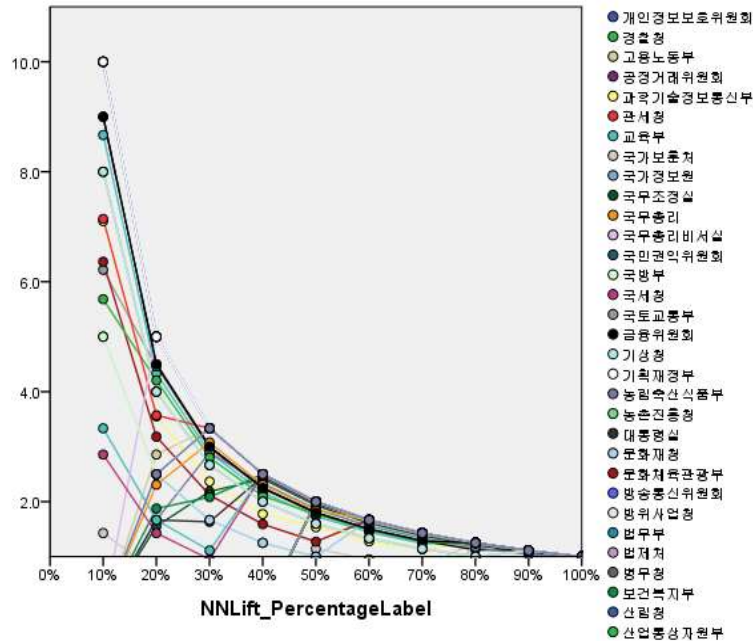
입력 레이어	요인	1	성명
	공변량	1	공직출신비중
	단위 수a		357
숨겨진 레이어	공변량 조정 방법		정규화
	숨겨진 레이어 수		1
	숨겨진 레이어 1에서 단위 수a		20
출력 레이어	활성화 함수		쌍곡 탄젠트
	종속변수	1	현재행정부소속기관
	단위 수		46
	활성화 함수		Softmax
	오차 함수		교차-엔트로피

a. bias 단위 제외

< 모형 엔트로피 검정 측정 요약 >

	교차 엔트로피 오차	20.847
	퍼센트 잘못된 예측	2.3%
훈련	사용된 중지 규칙	기간의 최대 수(100)가 초과되었습니다.
	훈련 시간	0:00:01.83
	종속변수:	현재행정부소속기관

<도표23> 방사형 누적분포도함수 다변량 공변량분석 결과



해석: <도표23>의 관피아 n=389개 직위 중 출신여부에 따라 관피아 비중에 영향을 주는 출신기관(분할노드)의 변수는 20개로 추정되며, H=20개 중 출신여부에 따라 전체 공변량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로서 1위 기획재정부, 2위 대통령실, 3위 교육부 순으로서 독립변수의 중요도가 나타나 (1)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고 (위 방사형 누적분포도함수의 상단부터 하단 순, 신뢰구간 95% 내 설명변수 총 20개 기관들로 한정된 <도표22>의 시계열 순위), 위 (3)의 집단간 동분산 가정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독립변수는 기획재정부 및 대통령실로 확인됨. 위 방사형 누적분포도함수의 10~20%구간에서 표준오차 내 벡터값에 확률밀도가 하락하는 기관들(검찰청,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의 순위는 좀 달라질 수 있으나 95% 신뢰구간 범위 내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동률”로 추정할 수 있음.

- (신뢰도) 한편, <도표22>에 대한 총 10회 기계학습 결과 정규화과정에서 불확실성은 2.3%(엔트로피: 20.7~20.8사이)로 측정되어 위 모형의 예측력은 97.7%로 확인됨. 독립/종속 변수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더미변수 총 n=10개(5개×2회)를 무작위로 랜덤기계학습(훈련수: 364, 370회)한 검정 오차율은 다음과 같음.

<도표22> 모형 검정결과 요약

	오차제곱합	55.838		오차제곱합	48.154
훈련 (370회)	퍼센트 잘못된 예측	22.2%	훈련 (364회)	퍼센트 잘못된 예측	15.9%
	훈련 시간	0:00:38.53		훈련 시간	0:00:35.38
검정 (더미변수 5개)	오차제곱합	.021a	검정 (더미변수 5개)	오차제곱합	.156a
	퍼센트 잘못된 예측	0.0%		퍼센트 잘못된 예측	0.0%

종속변수: 현재행정부소속기관

a. 숨겨진 단위 수는 검정 데이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숨겨진 단위의 "최상의" 수는 검정 데이터에서 가장 작은 오차가 발생하는 1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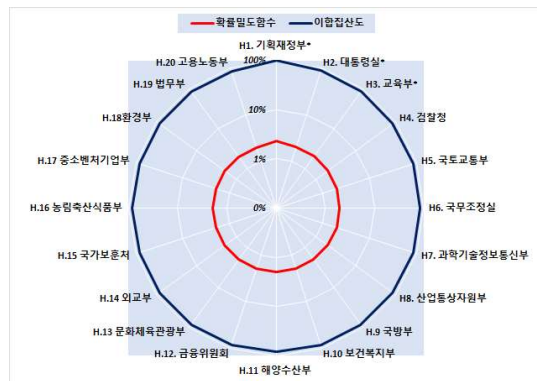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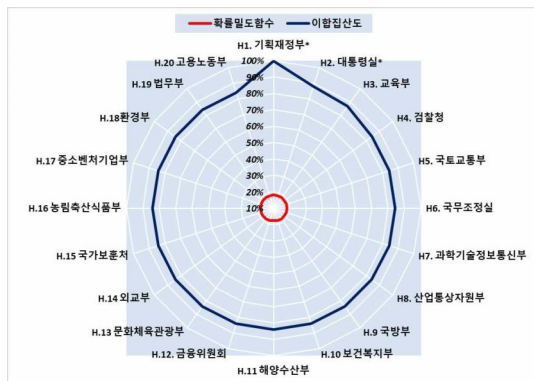
< (4) 및 (5)에 따른 정규분포 모형적합도 검정 결과>

- (4)가우스 분포 <도표22> -

- (5)로그 분포 <도표23> -

산식: 베르누이(1738), 척도: 0~1, 설명력=99.4%\*\*\*, 자유도=2

산식: 블랙-숄츠(1997), 척도: 파이제곱, 설명력=97.7%, 자유도=3



∴ 정규분포 신뢰구간 95% 범위 내 이합집산도 <표22>의 기관들과 일치하며, 순위는 1~3순위까지 강력한 신뢰가 추정됨. 위 검증결과와 같이 정규분포 95%신뢰구간 내 (4) 비선형 누적분포도함수의 설명력은 99.4%, (5) 방사형 누적분포도함수의 설명력은 97.7%, 모형의 예측력은 100%이므로 <표22>의 이합집산도는 타당함.

다만 군집도 분석 결과, 검찰청,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의 경우 ‘잡음(노이즈, 허수확률에 의한 누적분포값)’으로 추정됨. 그 원인은, ①원데이터 오류가 아니라면, ②표준오차의 정규화 과정에서 오류, ③위 모형의 연역적 한계로 추정할 수 있음. 이는, 추정된 독립변수 2~3개[즉, (4)에서 2개, (5)에서 3개]의 경우를 몇 개로 가정하나에 따라서, 군집밀도분석에서 추정된 잡음을 제외하고 이합집산도 내 순위는 다소 조정될 수도 있음. 이에 따라, F-분포에서

확인된 H=20개 기관의 각 벡터값에 따라 정규분포 내 시계열로 조정하고, 조정된 정규화 방사형 누적분포도함수에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오차를 반올림하여 누적분포도함수의 결과값이 같은 기관들은 “동순위”로 추정함.

- (균형위험도) 위 (3)비중편차에 따라 모수로 추정된 (4)의 누적분포함수의 총량(43.177) 대비 관피아 비중값인 기관별 확률밀도에 민간출신자와의 비중편차를 가중시켜 더한 값(6)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도표24>과 같음.

$$(6) - 1 = \frac{\sum PDF_n \sqrt{(\omega_{\text{공직}\sigma_{\text{전후}}})^2 + (\omega_{\text{민간}\sigma_{\text{공직-민간}}})^2} + 2(\omega_{\text{공직}\sigma_{\text{전후}}})(\omega_{\text{민간}\sigma_{\text{공직-민간}}})}{CDF \sum \omega_n \sigma_n}$$

$$\sum PDF_n + SE = CDF \rightarrow \frac{\sum \sqrt{(\omega_{\text{공직}\sigma_{\text{전후}}})^2 + (\omega_{\text{민간}\sigma_{\text{공직-민간}}})^2} + 2(\omega_{\text{공직}\sigma_{\text{전후}}})(\omega_{\text{민간}\sigma_{\text{공직-민간}}})}{\sum \omega_n \sigma_n}$$


$$Risk Parity = \frac{\sqrt{(\omega_{\text{공직}\sigma_{\text{전후}}})^2 + (\omega_{\text{민간}\sigma_{\text{공직-민간}}})^2} + 2(\omega_{\text{공직}\sigma_{\text{전후}}})(\omega_{\text{민간}\sigma_{\text{공직-민간}}})}{\sum \omega_n \sigma_n}$$

또한 포트폴리오 선택이론(Markowitz, 1952)에 따라 균형위험도를 이용하여 위험비용이나 위험수익(소위 “프리미엄”)을 예측(7)할 수 있음

(7) - OUTPUT = INPUT × Risk Parity

나아가, 여기서 향후 정부가 관피아 비중을 위험분산 대책(5의 델타헤지)에 따른 예측변수로 설정할 경우 산식은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8) -  $\omega_{\text{미래}} = \omega_{\text{현재}} + \frac{1}{2} \Delta Risk Parity^2, \Delta = \Phi(d_1)$

□ 검증 의견 

출신여부와 동분산성을 갖는 다른 독립변수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적어도 모피아 출신여부와 나머지 변수들을 종속관계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뢰도 95%수준에서 설명력을 가지므로 일견 타당함.





□ 검정 결과값

\*불완전 베타계수=0.001, 신뢰구간 95%수준

중요변수 (IV 독립, H 설명)	비중편차 $w\sigma$	회귀분석 $R^2$	잔차 $\chi^2$	유의확률 $p$	상수 $\alpha$	확률밀도함수 PDF	누적분포함수 CDF	균위위험도 Risk Parity
IV-H1. 기획재정부	2.736	1401695	45331	0.032	0.785	0.023105009	0.996241798	0.3729
IV-H2. 대통령실	0.767	1239577	2580	0.002	0.728	0.020442632	0.881445393	0.1567
IV-H3. 교육부	0.627	1222771	1155	0.001	0.719	0.020164709	0.869461915	0.1131
H4. 검찰청	0.192	1186478	5	0.000	0.703	0.019568687	0.843762653	0.0261
H5. 국토교통부	0.165	1185631	10	0.000	0.703	0.019556784	0.843249421	0.0419
H6. 국무조정실	0.172	1185631	10	0.000	0.703	0.019556592	0.843241145	0.0334
H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072	1184078	22	0.000	0.704	0.019529853	0.842088192	0.1124
H8. 산업통상자원부	0.000	1182948	34	0.000	0.705	0.019510890	0.841270541	0.0307
H.9 국방부	0.050	1182665	37	0.000	0.704	0.019505952	0.841057627	0.0068
H.10 보건복지부	0.026	1182524	39	0.000	0.704	0.019504725	0.841004747	0.0198
H.11 해양수산부	0.025	1182524	39	0.000	0.704	0.019504355	0.840988796	0.0093
H.12. 금융위원회	0.037	1182524	39	0.000	0.704	0.019503886	0.840968540	0.0061
H.13 문화체육관광부	0.017	1182383	41	0.000	0.704	0.019502544	0.840910695	0.0345
H.14 외교부	0.022	1182383	41	0.000	0.704	0.019502102	0.840891654	0.0042
H.15 국가보훈처	0.023	1182383	41	0.000	0.705	0.019502096	0.840891374	0.0036
H.16 농림축산식품부	0.000	1182383	41	0.000	0.704	0.019501671	0.840873066	0.0045
H.17 중소벤처기업부	0.010	1182383	41	0.000	0.704	0.019501570	0.840868690	0.0030
H.18 환경부	0.010	1182383	41	0.000	0.704	0.019501570	0.840868690	0.0020
H.19 법무부	0.017	1182383	41	0.000	0.704	0.019501570	0.840868690	0.0023
H.20 고용노동부	0.007	1182383	41	0.000	0.704	0.019501317	0.840857767	0.0046
식품의약품안전처	0.006	1182383	41	0.000	0.704	0.019501219	0.840853565	0.0014
행정안전부	0.006	1182383	41	0.000	0.704	0.019501219	0.840853565	0.0014
특허청	0.000	1182383	41	0.000	0.705	0.019501184	0.840852060	0.0011
산림청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126	0.840849539	0.0005
방위사업청	0.005	1182242	43	0.000	0.704	0.019501100	0.840848418	0.0007
통일부	0.003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83	0.840847683	0.0006
경찰청	0.003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83	0.840847683	0.0005
인사혁신처	0.003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83	0.840847683	0.0005
여성가족부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48	0.840846177	0.0027
기상청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48	0.840846177	0.0000
원자력안전위원회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48	0.840846177	0.0000
공정거래위원회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48	0.840846177	0.0000
농촌진흥청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48	0.840846177	0.0000
소방청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48	0.840846177	0.0000
관세청	0.002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44	0.840846002	0.0003
국가정보원	0.002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44	0.840846002	0.0003
문화재청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8	0.840845337	0.0000
국무총리비서실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8	0.840845337	0.0000
국세청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8	0.840845337	0.0000
해양경찰청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8	0.840845337	0.0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001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4	0.840845162	0.0001
국무총리	0.001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4	0.840845162	0.0001
법제처	0.001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4	0.840845162	0.0001
병무청	0.001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4	0.840845162	0.0001
새만금개발청	0.001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4	0.840845162	0.0001
조달청	0.001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4	0.840845162	0.0001
통계청	0.001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4	0.840845162	0.0001
방송통신위원회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2	0.840845057	0.0007
국민권익위원회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2	0.840845057	0.0002
질병관리청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2	0.840845057	0.00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000	1182242	43	0.000	0.704	0.019501022	0.840845057	0.0002
합계	5.010	60628030	50952	0.037	36.039	1.000	43.117	1.000
평균	0.098	1188785	999	0.001	0.707	0.020	0.845	0.020